

여론조사꽃 제42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REPORT #202306_01

ARS+CATI

제40차 ARS조사

제25차 CATI조사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제42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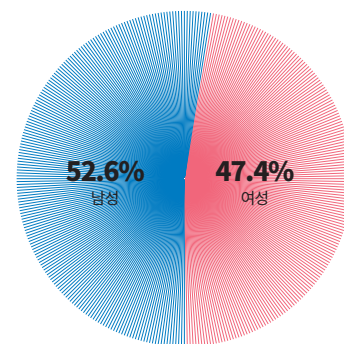
ARS & CATI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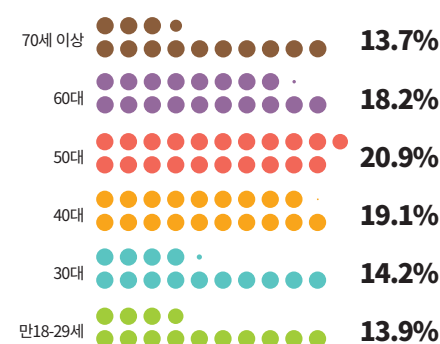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6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5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2.4% [총 통화시도 41,927명]
조사기간	2023년 6월 2일 ~ 6월 3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6	100.0%	1,006	100.0%	1.00
성별	남성	529	52.6	499	49.6	0.94
	여성	477	47.4	507	50.4	1.06
연령	만18~29세	140	13.9	166	16.5	1.19
	30대	143	14.2	151	15.0	1.06
	40대	192	19.1	181	18.0	0.94
	50대	210	20.9	196	19.5	0.93
	60대	183	18.2	171	17.0	0.93
	70세 이상	138	13.7	141	14.0	1.02
지역	서울	194	19.3	188	18.7	0.97
	인천·경기	318	31.6	320	31.8	1.01
	대전·세종·충청	109	10.8	106	10.5	0.97
	광주·전라	94	9.3	98	9.7	1.04
	대구·경북	94	9.3	99	9.8	1.05
	부산·울산·경남	153	15.2	151	15.0	0.99
	강원·제주	44	4.4	44	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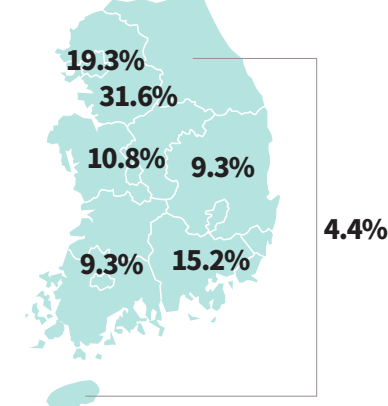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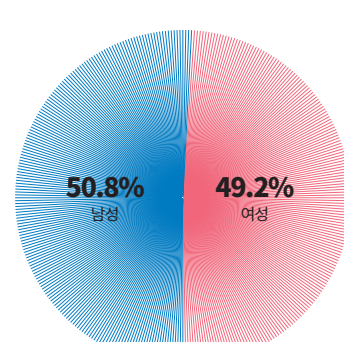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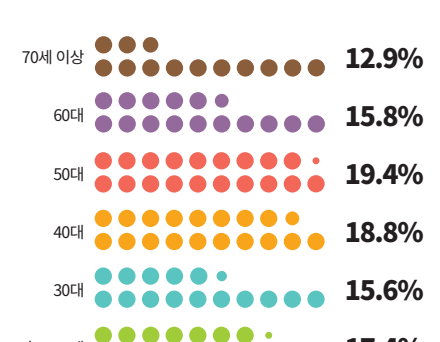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30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5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7.1% [총 통화시도 6,039명]
조사기간	2023년 6월 2일 ~ 6월 3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30	100.0%	1,030	100.0%	1.00
성별	남성	523	50.8	512	49.7	0.98	
	여성	507	49.2	518	50.3	1.02	
연령	만18~29세	179	17.4	169	16.4	0.94	
	30대	161	15.6	155	15.0	0.96	
	40대	194	18.8	187	18.2	0.96	
	50대	200	19.4	199	19.3	1.00	
	60대	163	15.8	174	16.9	1.07	
	70세 이상	133	12.9	146	14.2	1.10	
지역	서울	193	18.7	195	18.9	1.01	
	인천·경기	321	31.2	328	31.8	1.02	
	대전·세종·충청	110	10.7	109	10.6	0.99	
	광주·전라	104	10.1	99	9.6	0.95	
	대구·경북	101	9.8	101	9.8	1.00	
	부산·울산·경남	157	15.2	153	14.9	0.97	
	강원·제주	44	4.3	45	4.4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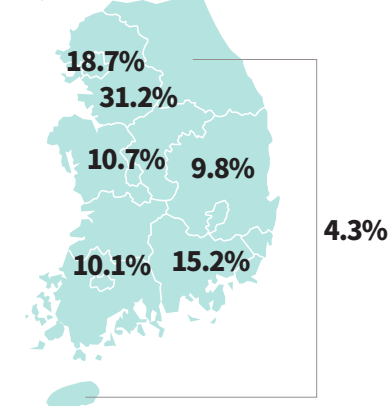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본 조사 결과는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관 108호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 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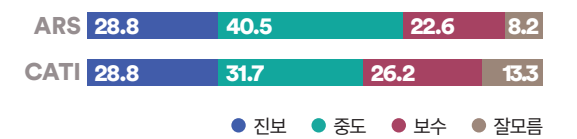
여론조사꽃 제42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RS & CATI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42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는 국정지지도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사회 현안을 ARS와 전화면접조사로 묻고 그 응답을 정리해 보고합니다.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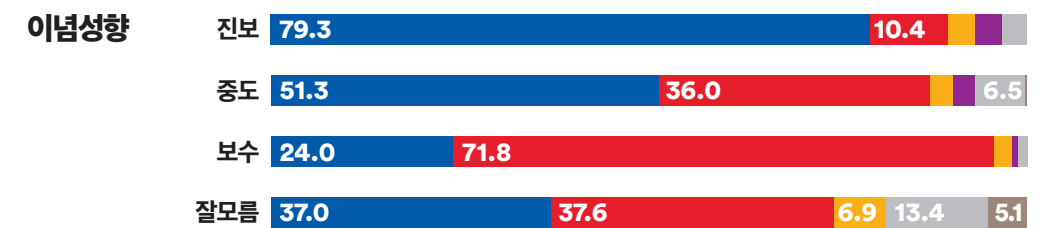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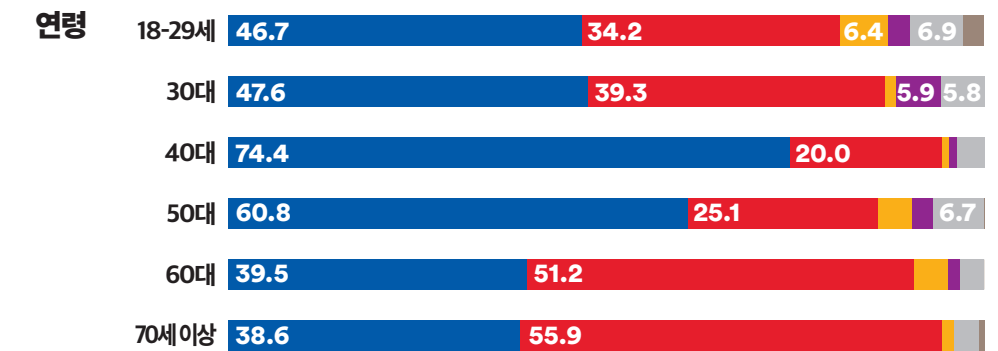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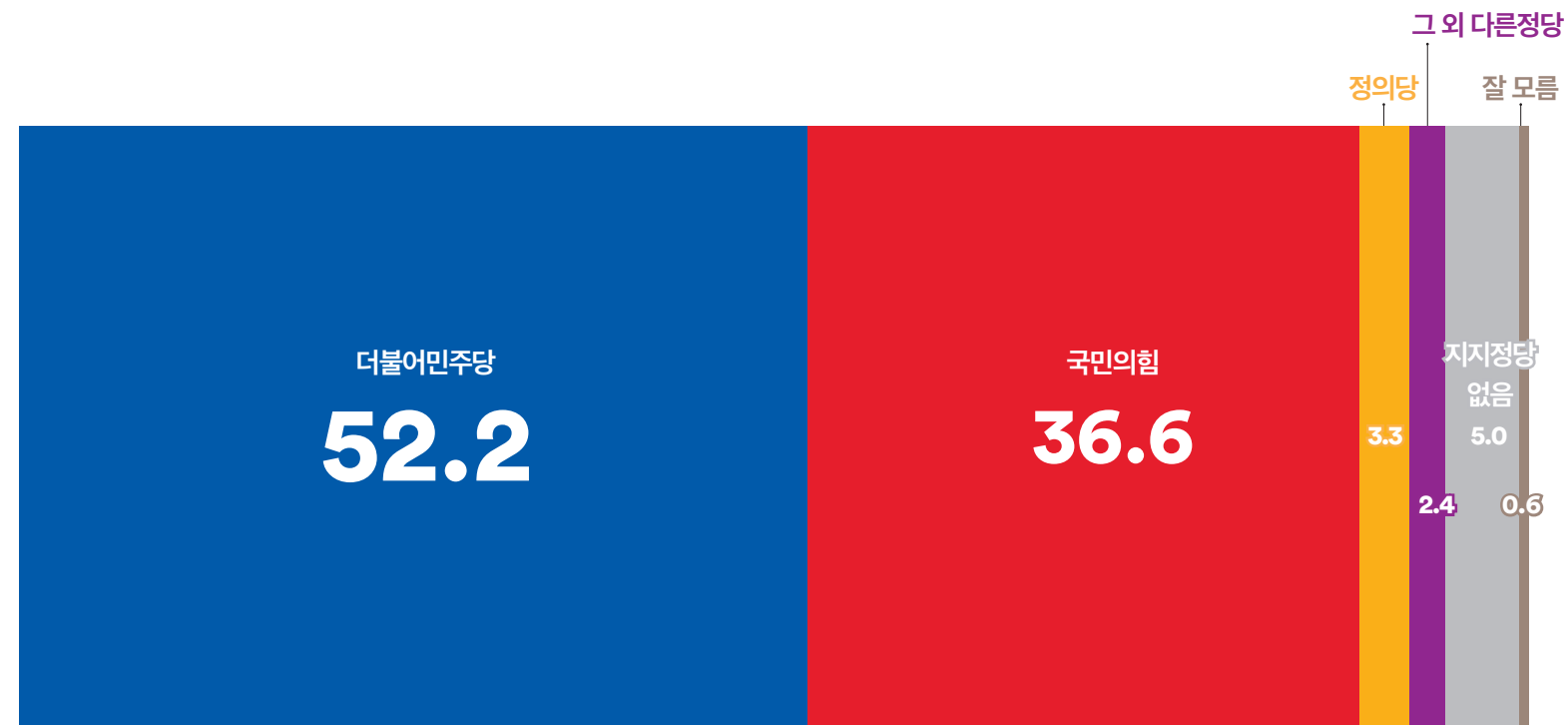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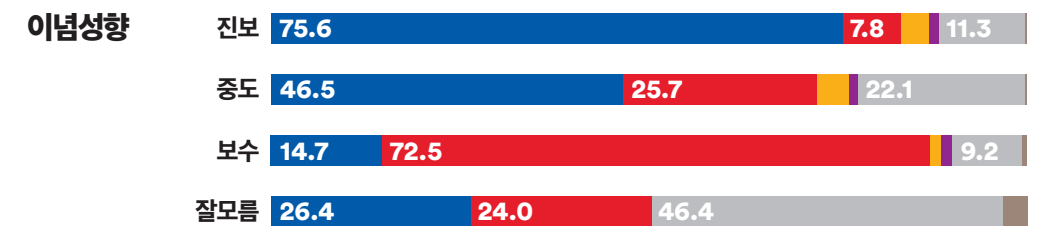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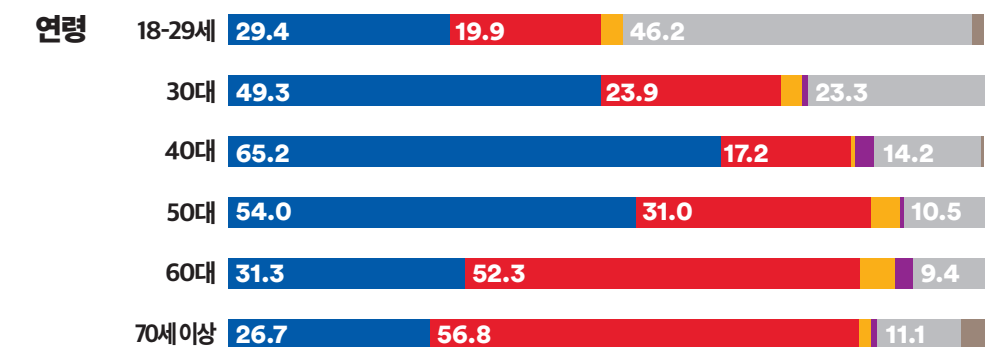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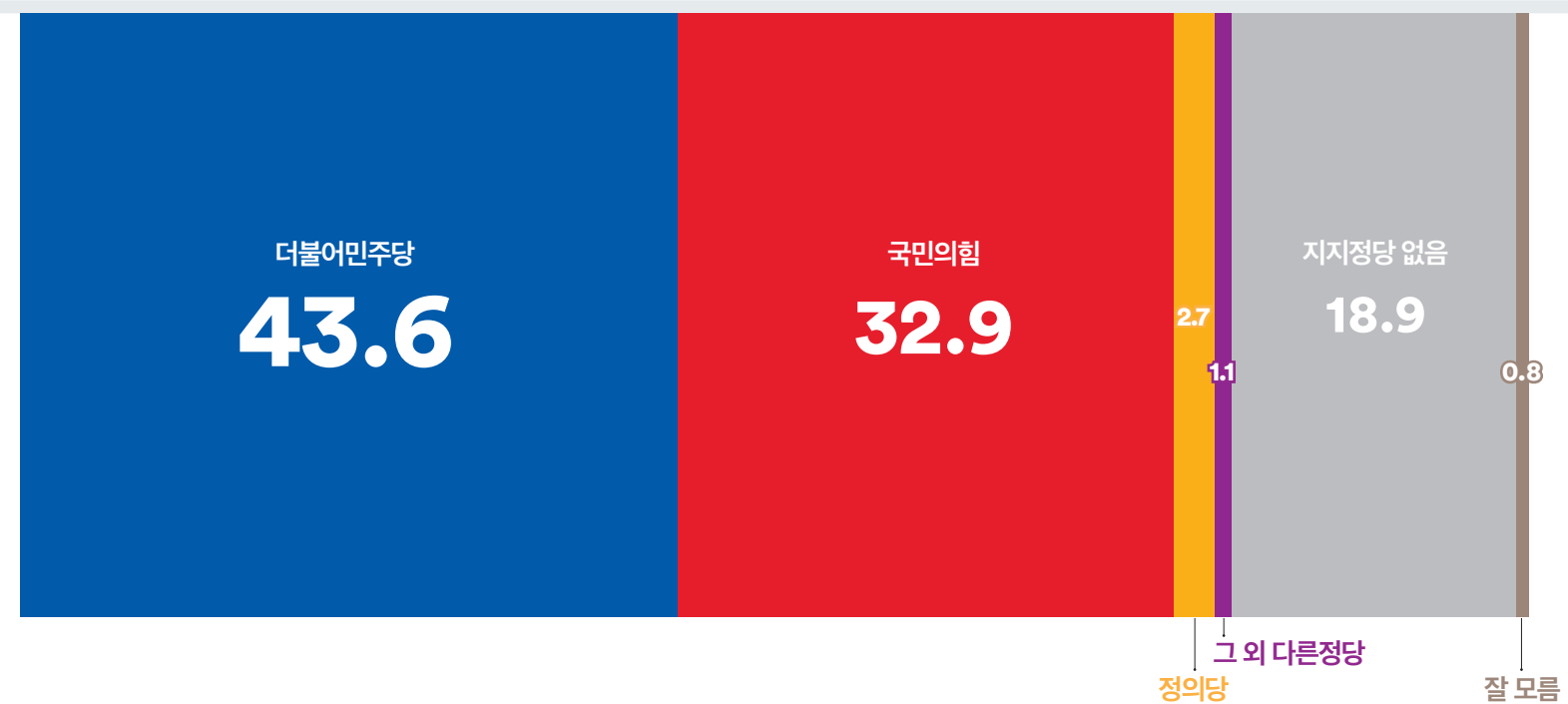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RS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2%p 상승, 국민의힘 3.4%p 하락 (격차 15.6%p)

지난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9%p 상승, 국민의힘 3.0%p 상승 (격차 10.7%p)

남·녀, 40-50대(CATI 30대 포함), 진보·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우세, 70세 이상, 보수층은 국민의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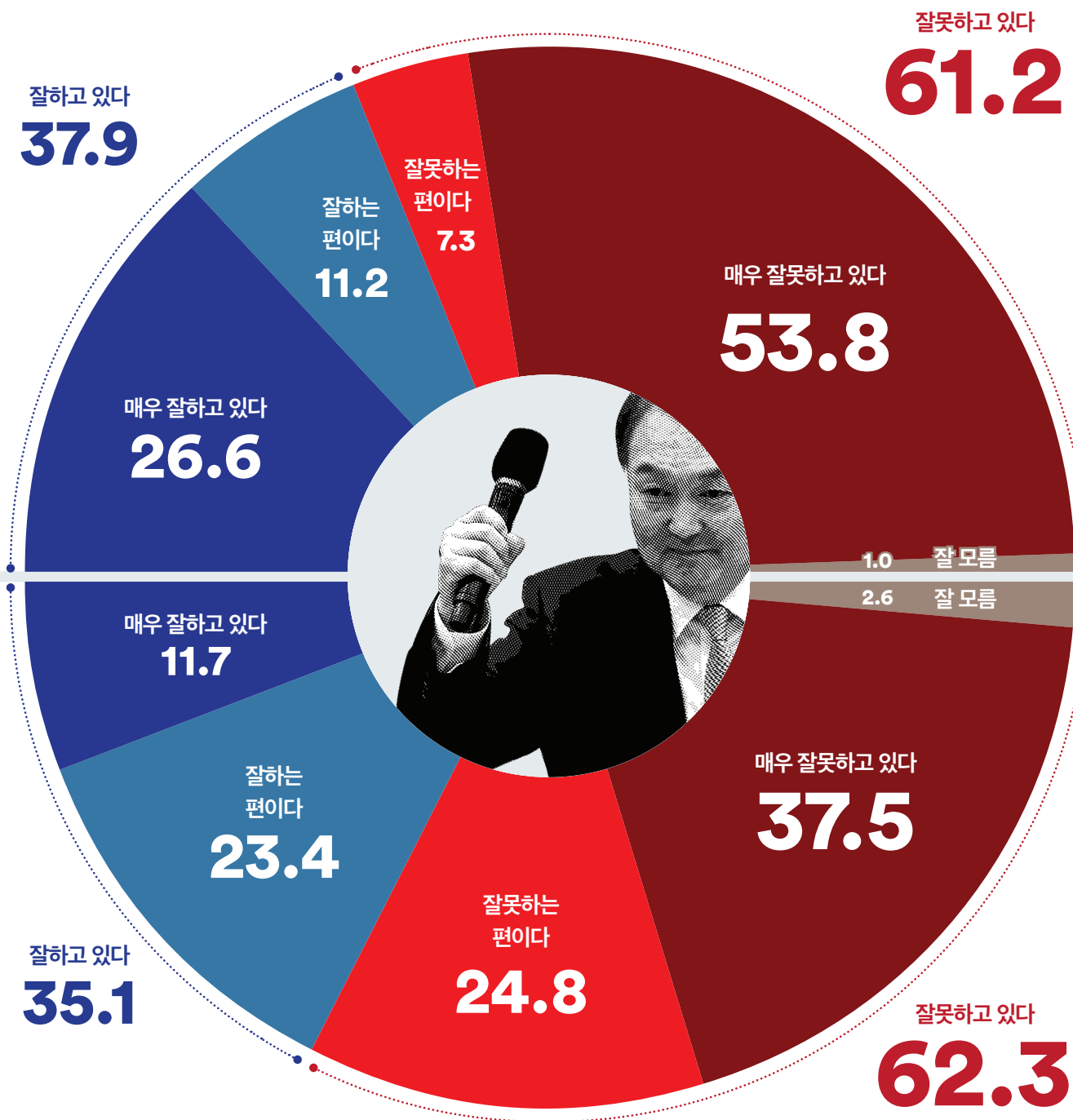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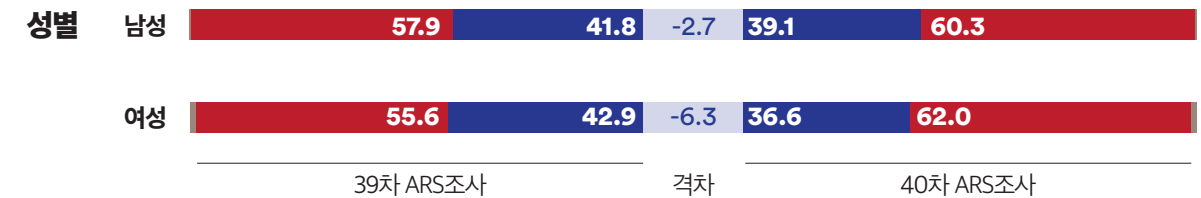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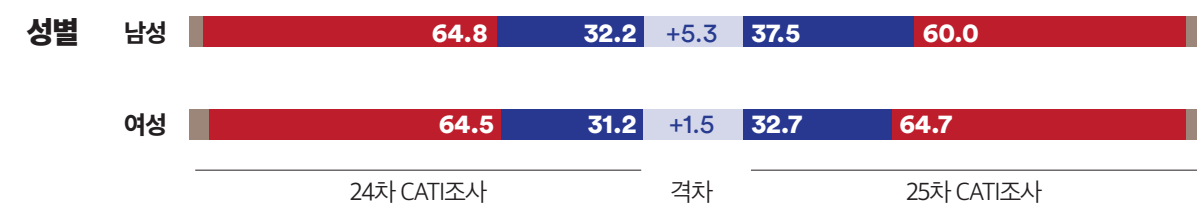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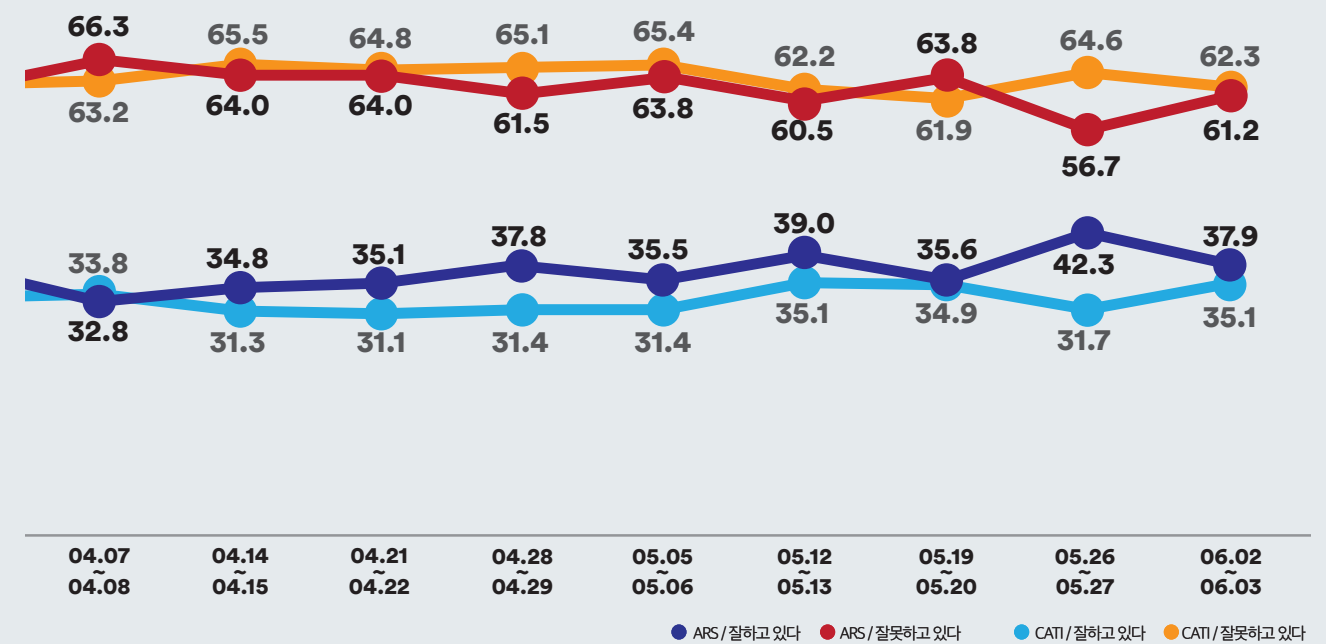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4.4%p 하락, 부정평가 4.5%p 상승 (격차 23.3%p)
지난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3.4%p 상승, 부정평가 2.3%p 하락 (격차 27.2%p)
남·녀 모두, 50대이하 응답층, 수도권·호남권(CATI 층청 포함), 진보층·중도층에서 부정평가 우세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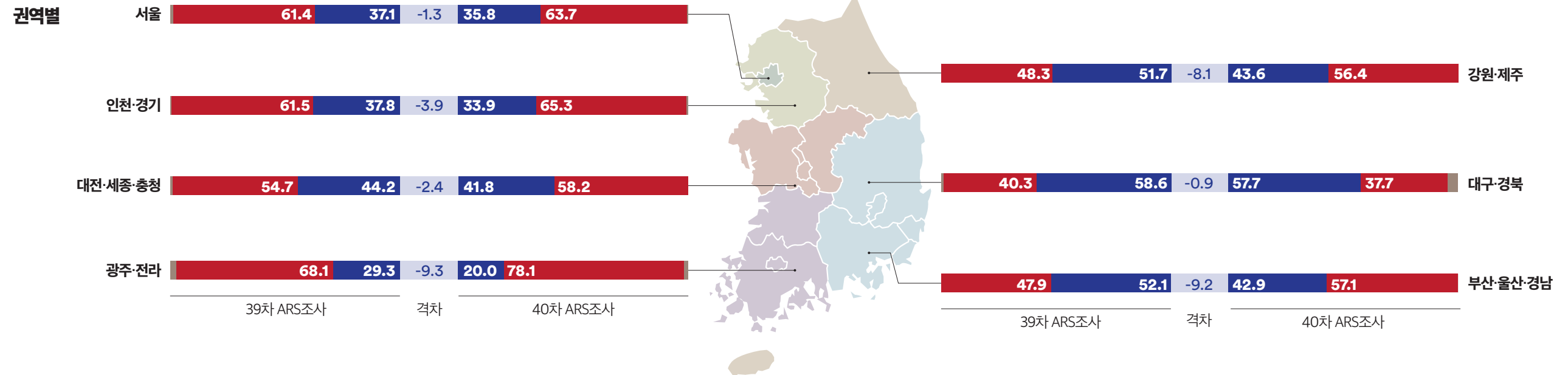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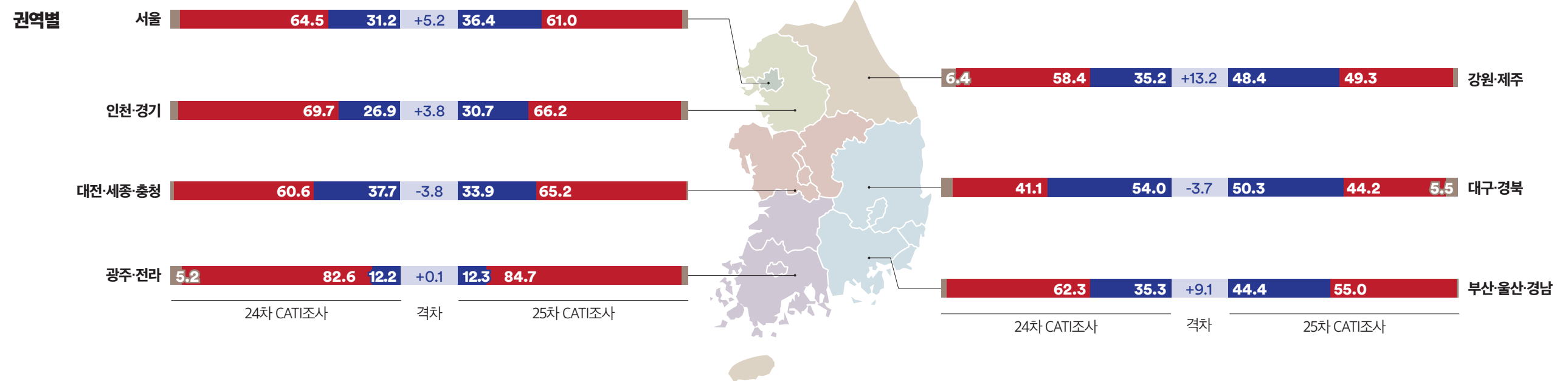
국정운영 평가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RS



CATI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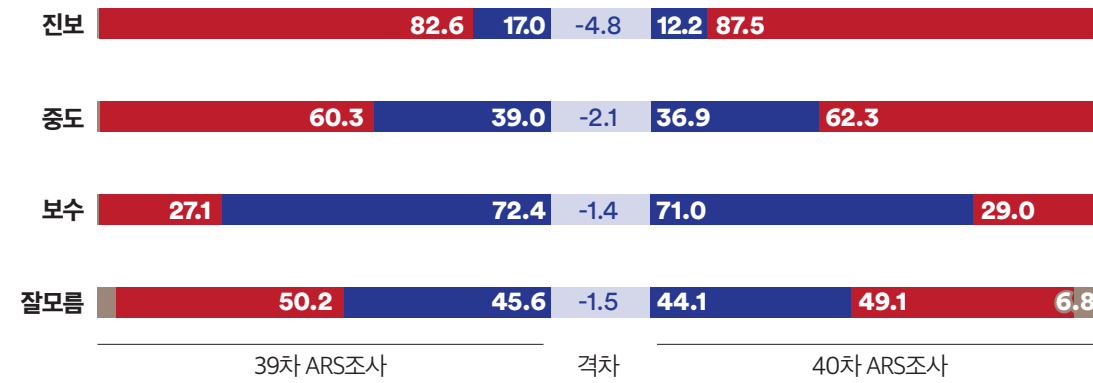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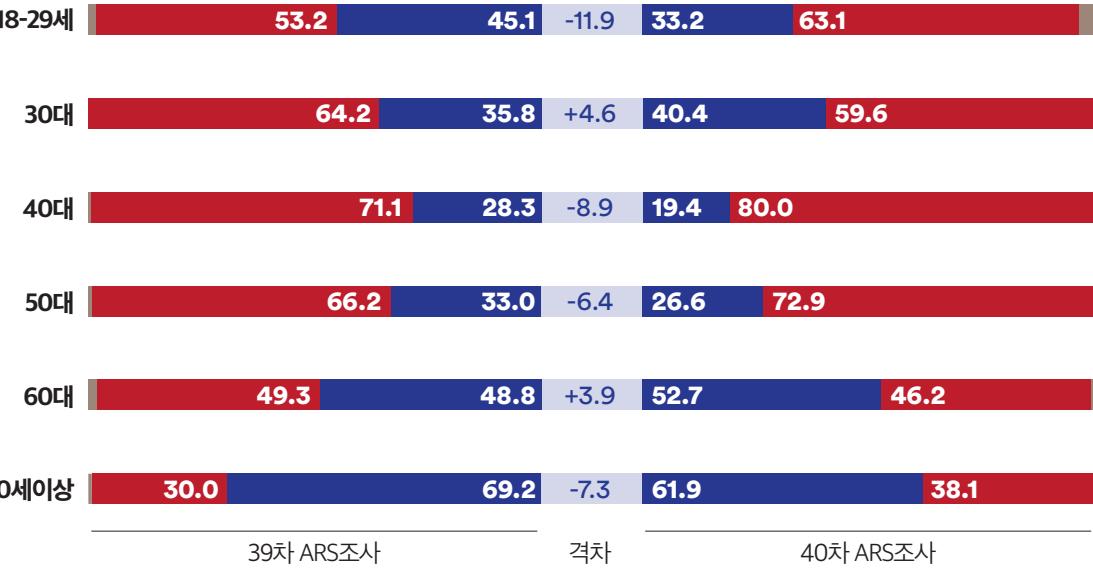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RS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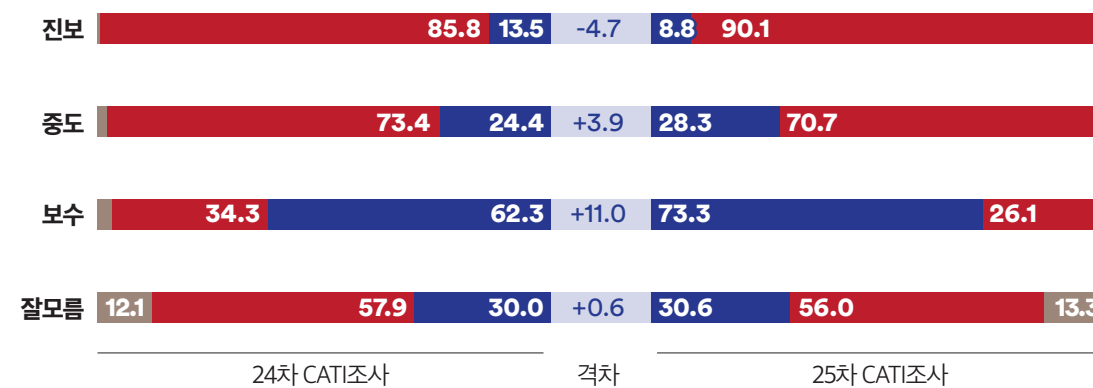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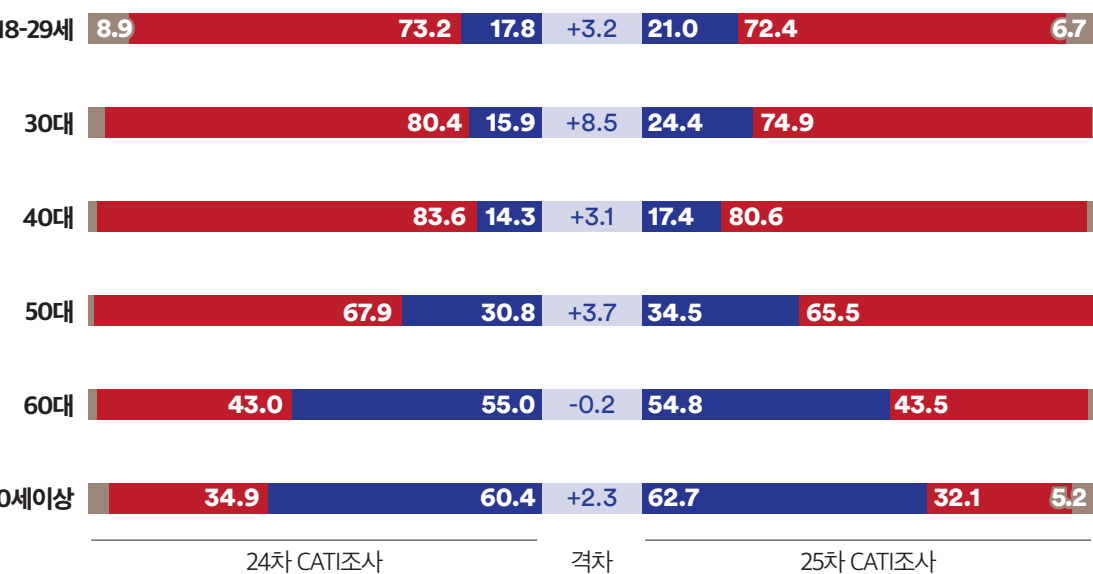


CATI

이념성향



연령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제42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총선인식, 경계 경보 발령

ARS & CATI / CATI

총선인식

오발령: 누구의 책임인가

오발령: 서울시장의 변

앞으로의 대응방향

여론조사 꽃 6월의 첫번째 조사에서는 총선에 대한 인식을 묻고 이전 조사와 비교했습니다. 지난 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시험에 대한 서울시의 경계 발령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오발령의 책임 기관과 행정안전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장의 해명에 대해 묻고, 만약 북한이 또 다시 인공위성 발사 시험을 할 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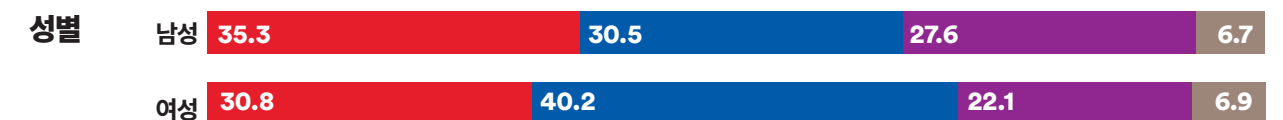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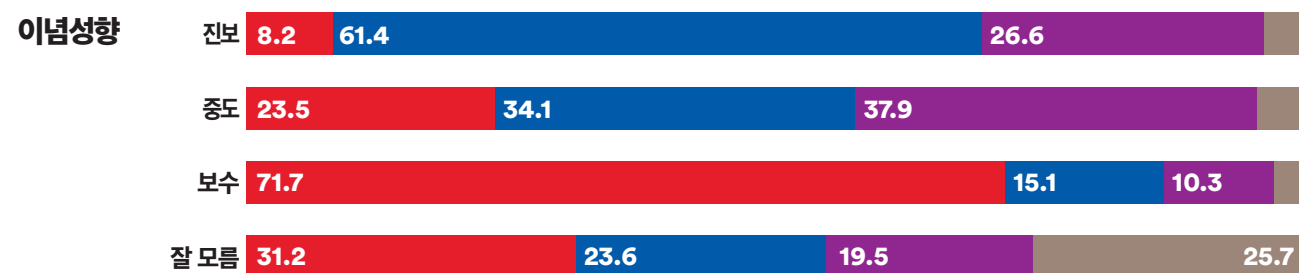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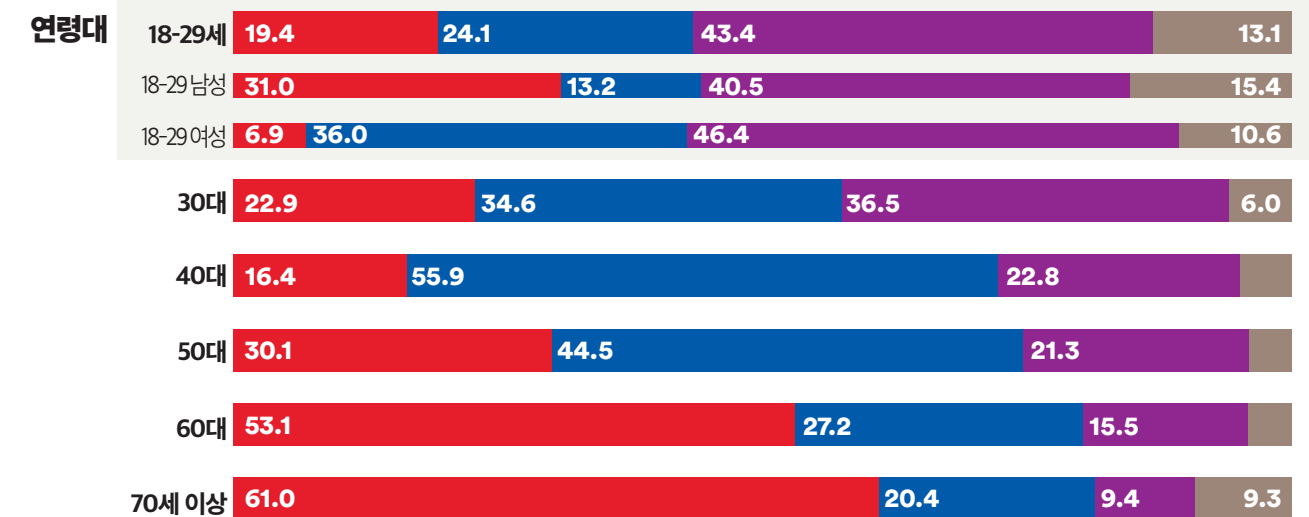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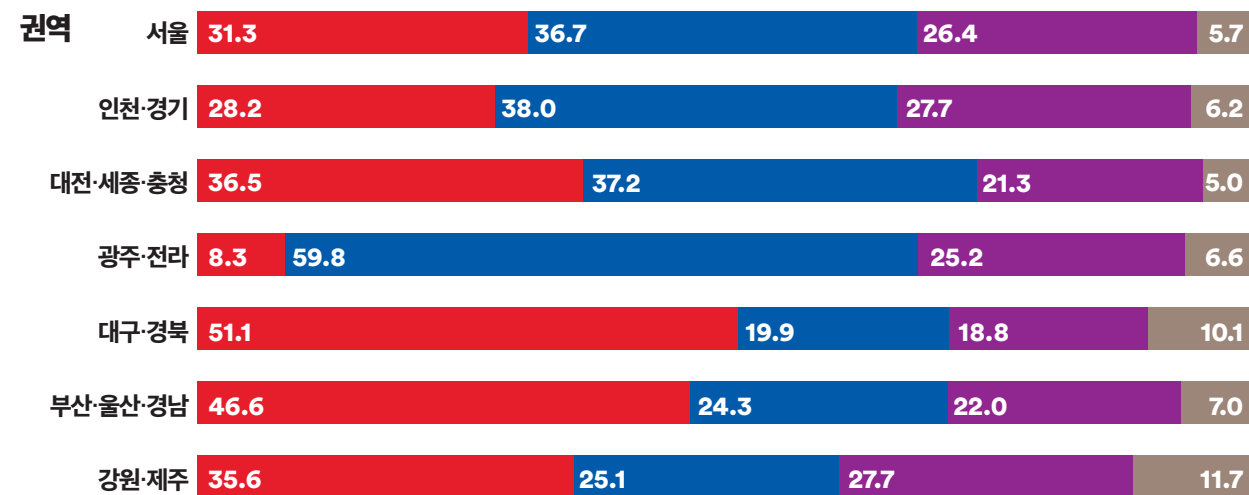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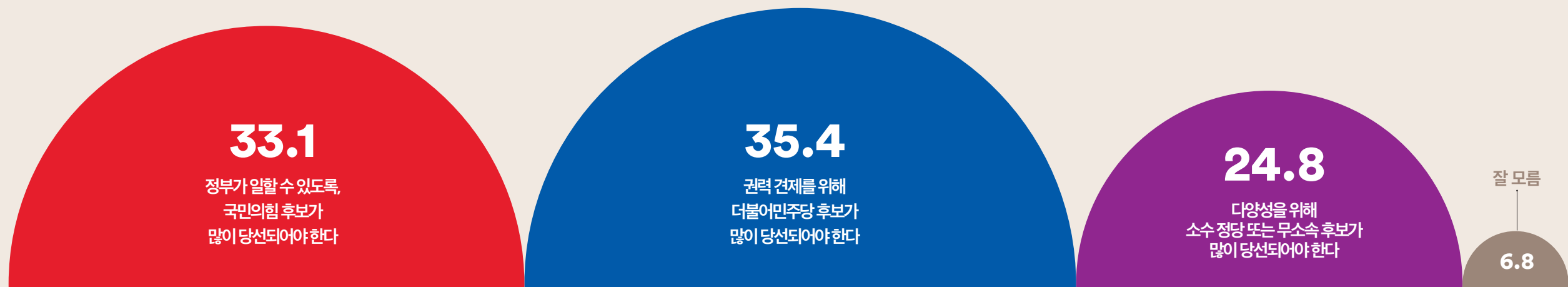
총선 인식

Q. 차기 총선에 대한 다음 의견 중 무엇에 더 공감하십니까?

경상권, 강원·제주 지역은 '정부지원', 그 외의 지역은 '권력 견제'가 가장 많음
30대 이하는 '다양성', 40·50대는 '권력 견제', 60세 이상은 '정부 지원'이 가장 많음

지난 34차 정례조사^{CATI 4월 첫주 조사}와 비교해 보면

정부 지원 33.1%(↓0.5%p) / 권력견제 35.4%(↓1.5%p) / 다양성 24.8%(↑1.2%p)로
거대 양당보다는 다양성을 위한 선택을 하겠다는 인식이 소폭 상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소수정당·무소속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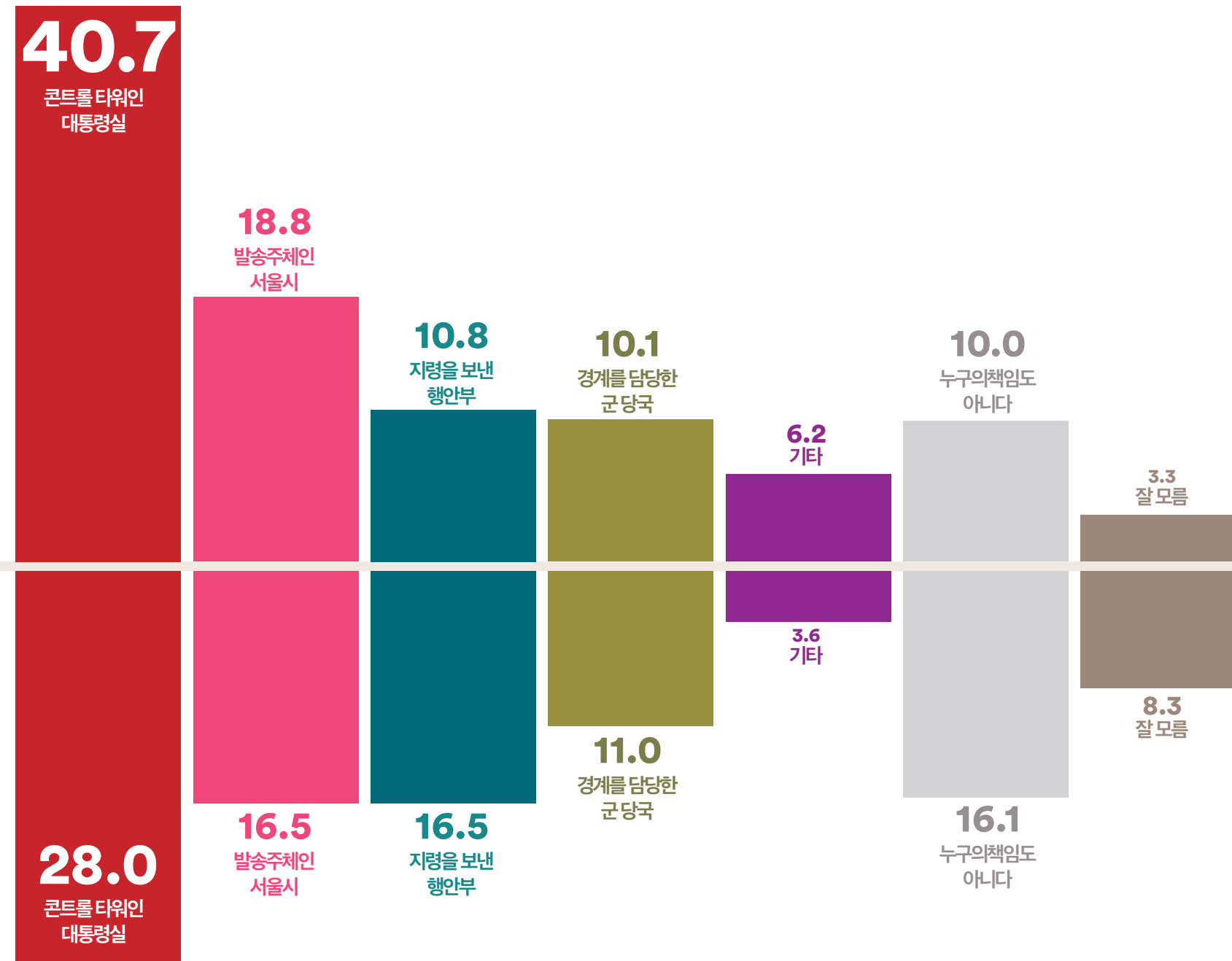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오발령: 누구의 책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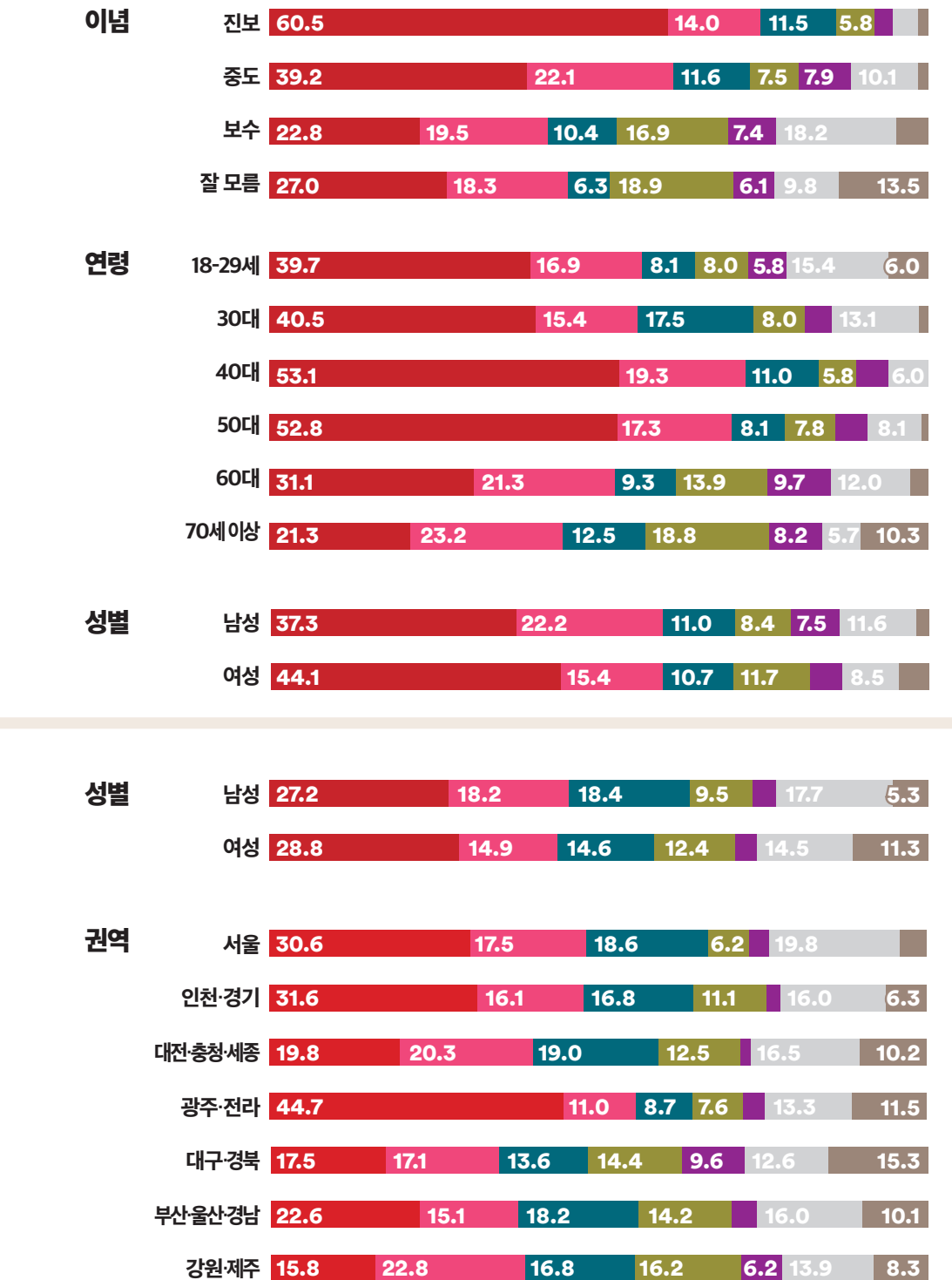
Q. 북한 인공위성 발사 후 서울시는 경계정보를 발령하고, 20분후 행정안전부는 오발령이라고 정정하는 등 큰 혼선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ARS

CATI



두 조사 모두 '콘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응답이 제일 높았음
 민주당 지지층은 '대통령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응답(ARS 66.9%, CATI 48.9%)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라는 응답(ARS 25.1%, CATI 26.6%)이 가장 많음
 무당층(ARS 29.8%, CATI 22.3%), 중도층(ARS 39.2%, CATI 32.8%)에서도 '대통령실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ARS의 경우 보수층에서도 '대통령실(22.8%)'이 가장 높게 나타남



대통령실 서울시 행안부 군당국 기타 누구 책임도 아님 잘 모름

정치·사회 현안

오발령: 서울시장의 변

Q. 오세훈 시장은 과잉대응이나, 오발령은 아니며 필요한 조치였다 해명했습니다. 이 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8.6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과잉 조치가 낫기 때문에
납득된다

“이번 긴급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3.5.31. 위급 재난 문자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

“(서울시 재난문자가) 오발령인 이유는
군에서 최초 통보받은 내용과 다르기 때문이다.
지령은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에 공유됐다.
‘경보 미수신 지역’이란 경제정보 대상인 백령·대청면에서
정보를 받지 못한 지역을 말한다.
읍면동 책임자와 민방위 관계자에게 대응을 당부한
지령 뒷부분을 함께 읽으면 이를 알 수 있다”

[2023.5.31. 위급 재난 문자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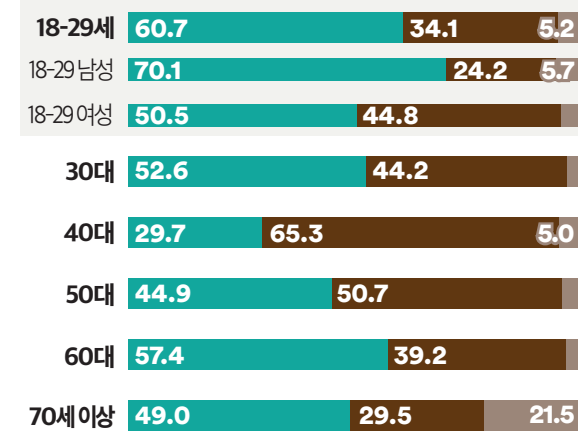
44.7

불안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조치였으므로
변명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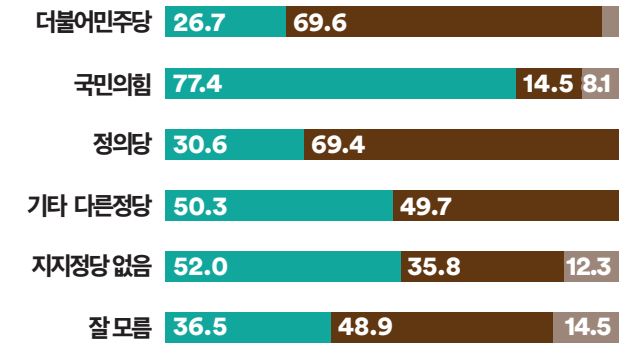
6.7 잘 모름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과잉 조치가 낫기 때문에 납득된다’는 응답이 앞섬
서울·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납득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 앞섬
18-29세, 60세 이상은 ‘납득된다’는 응답 우세, 40대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응답 우세
무당층은 ‘납득된다’는 응답이 우세, 중도층은 두 응답이 박빙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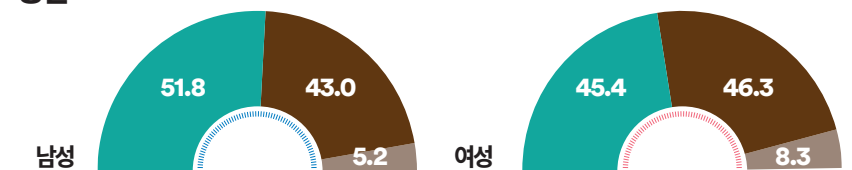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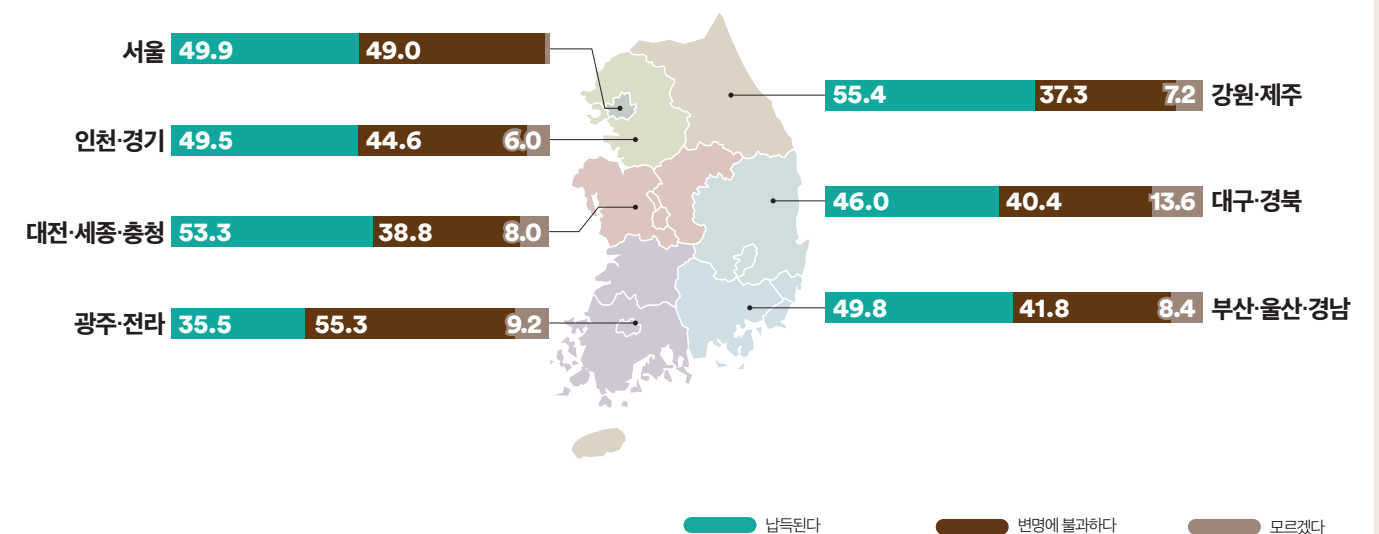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납득된다 변명에 불과하다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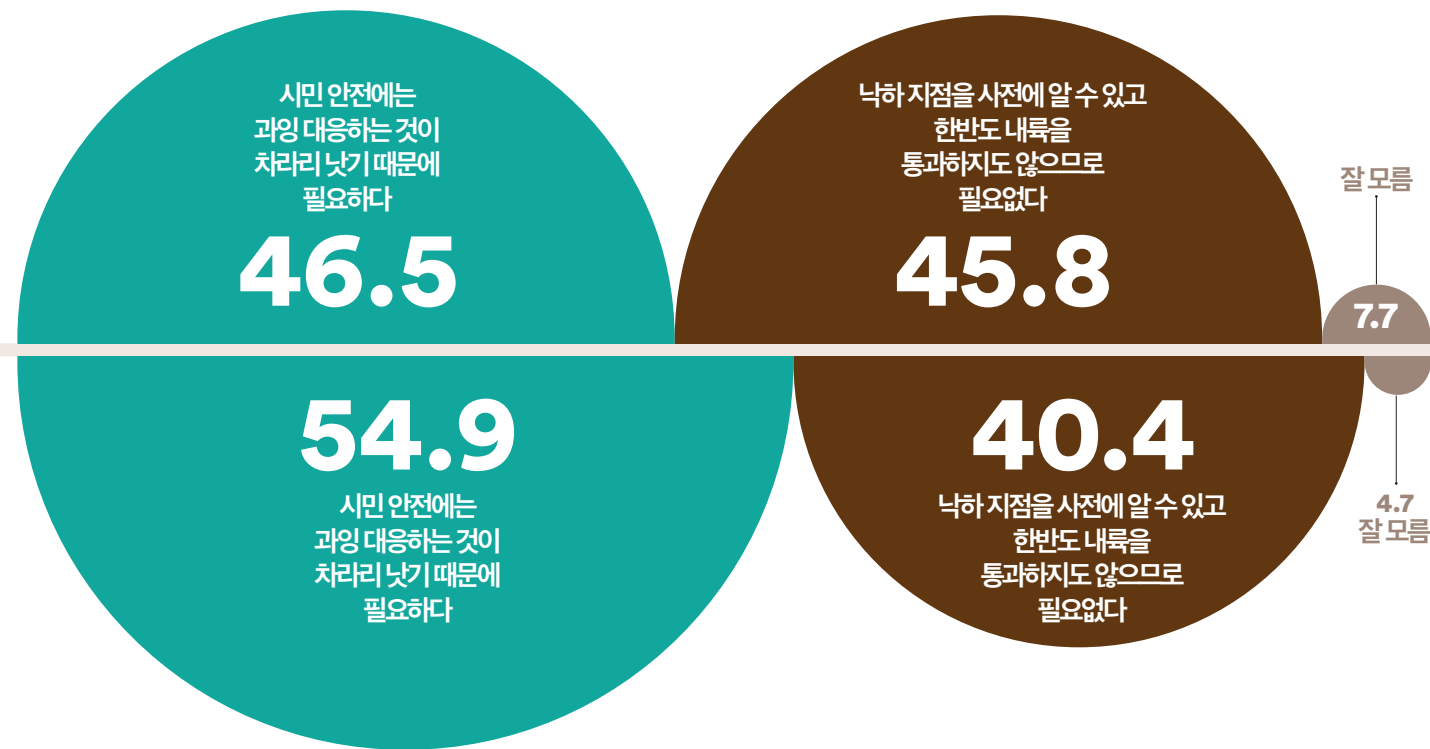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앞으로의 대응방향

Q. 북한이 인공위성을 또 다시 발사할 경우, 경제정보 발령과 대피문자 전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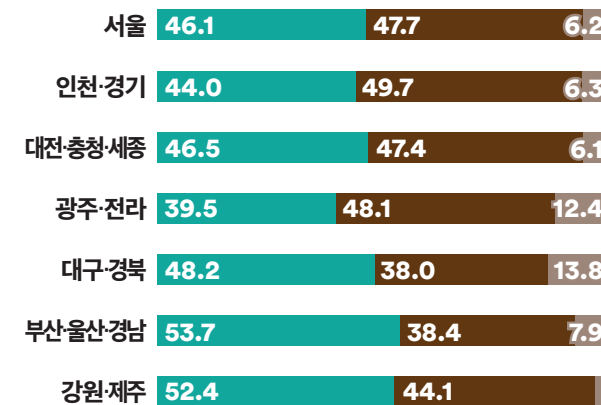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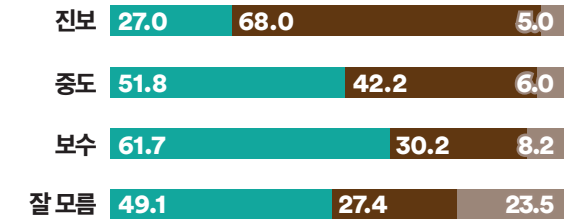


CATI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 ARS에서는 0.7%p 격차로 박빙
 ARS | 40·50대는 '필요없다'는 응답, 60·70대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
 CATI | 18·29세, 60·70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
 사건·사고에 대해 정부기관의 부실한 대응보다는 불편하더라도 과잉대응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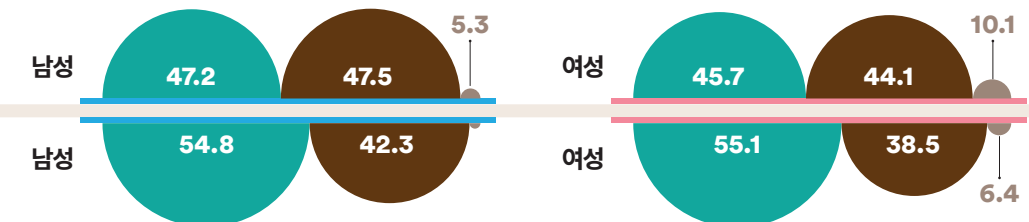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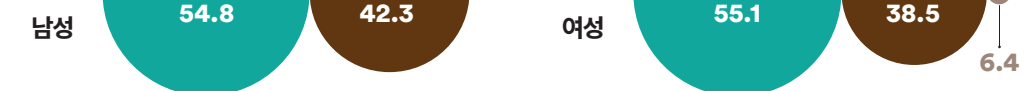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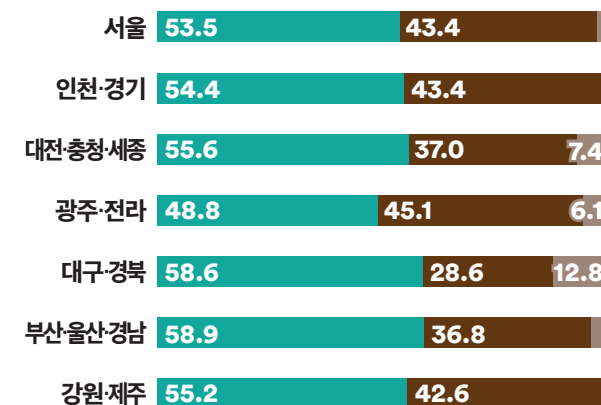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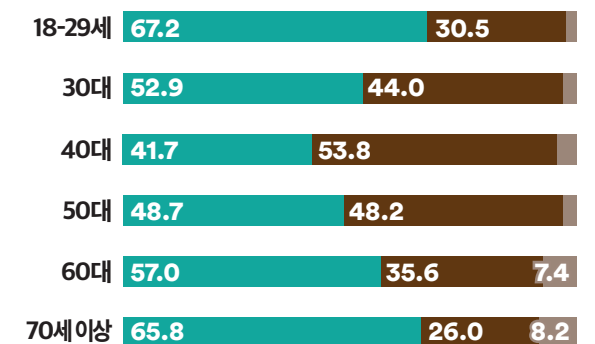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필요하다 필요없다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제42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일본, 언론 이슈

ARS & CATI / CATI

일본: 북한과의 수교

일본: 윤 대통령과의 소통

언론과 욱일기

MBC기자 압수수색

일본이 북한에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북한은 화답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중심에서 외교중심으로 기조를 바꾸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한반도 문제 핵심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의 접촉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북한과 일본이 관계를 개선한다면 남한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일본 자위대 군함이 욱일기를 달고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일본언론에서는 ‘욱일기 내걸고 한국 부산에 입항’이라고 썼지만 우리나라의 몇몇 언론은 욱일기를 설명하며 ‘햇살무늬 자위함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성을 물었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 제출 자료를 다른 언론사의 기자에게 건넸다는 이유로 MBC기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기자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날리면”을 보도한 기자입니다. ‘보복수사’라는 의견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정치·사회 현안

일본: 북한과의 수교

Q. 일본 기시다 총리가 북한에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북한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의 수교 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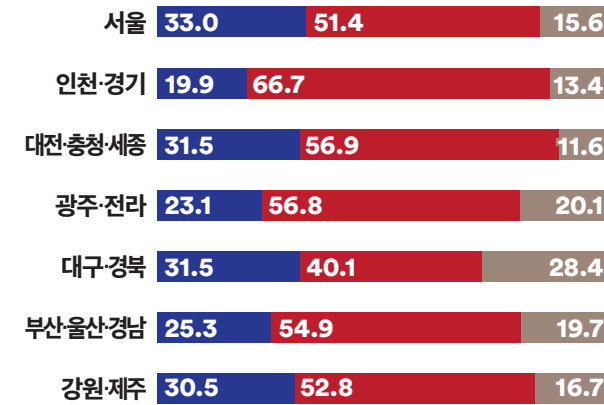
“저는 조건을 달지 않고 언제라도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심을 하고 있고 전력을 다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북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고위급에서 협의를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 5.27일 발언]

“만일 일본이 과거에 없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모색하려 한다면 조·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입장”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 5월 29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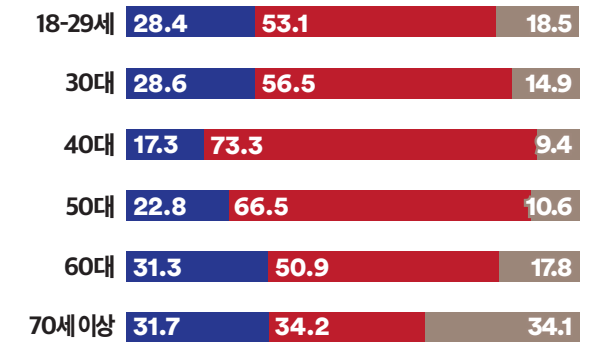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정도는 북한과 일본 수교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를 표함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우려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우려된다’는 응답은 무당층(ARS 65.3%, CATI 57.2%), 중도층(ARS 57.8%, CATI 62.4%)에서도 우세
외교 무대에서의 대한민국의 입지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큼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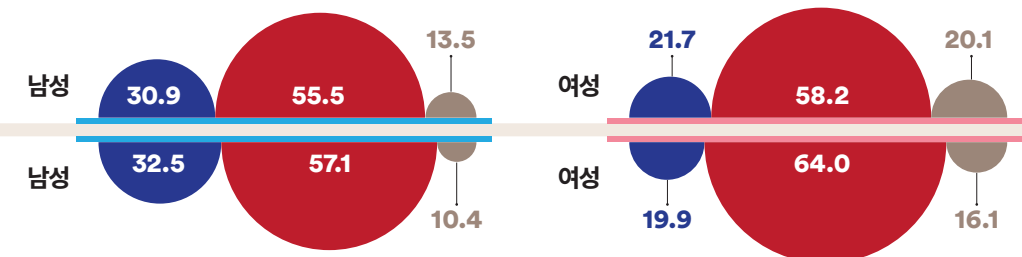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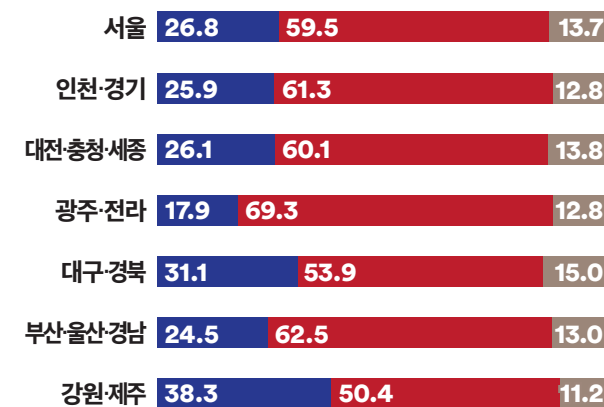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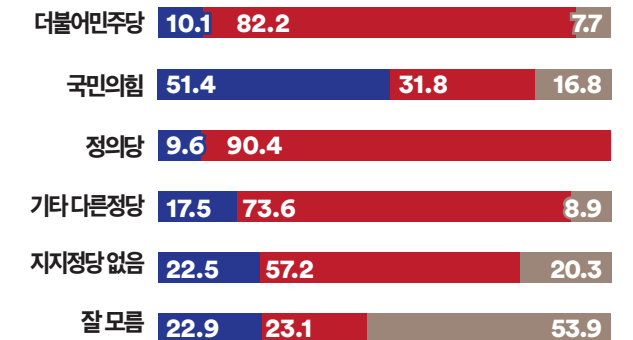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기대된다 우려된다 모르겠다

이러한 결과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치·사회 현안

일본: 윤 대통령과의 소통

Q. 5월 한 달간 전·현직 일본 총리 3명이 연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9.3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호적인 방문으로
긍정적이다

54.9

일본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방문으로
경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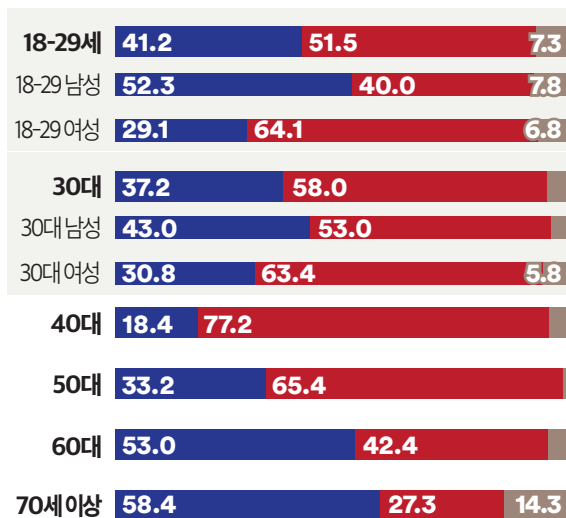
5.8
잘 모름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전·현직 일본 총리의 방문을 경계해야 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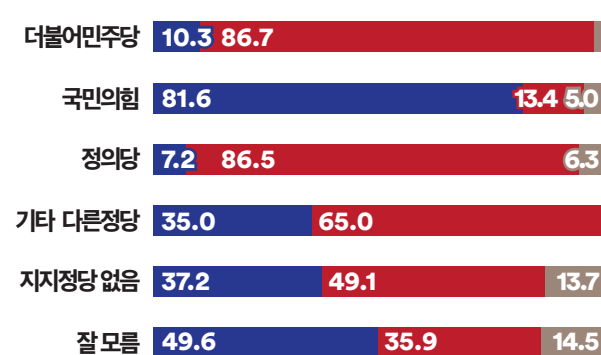
TK, 강원·제주, 60세 이상 응답자(세부 변수에서는 18-29 남성 포함)는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앞섰고

그 밖의 지역 및 연령은 모두 '경계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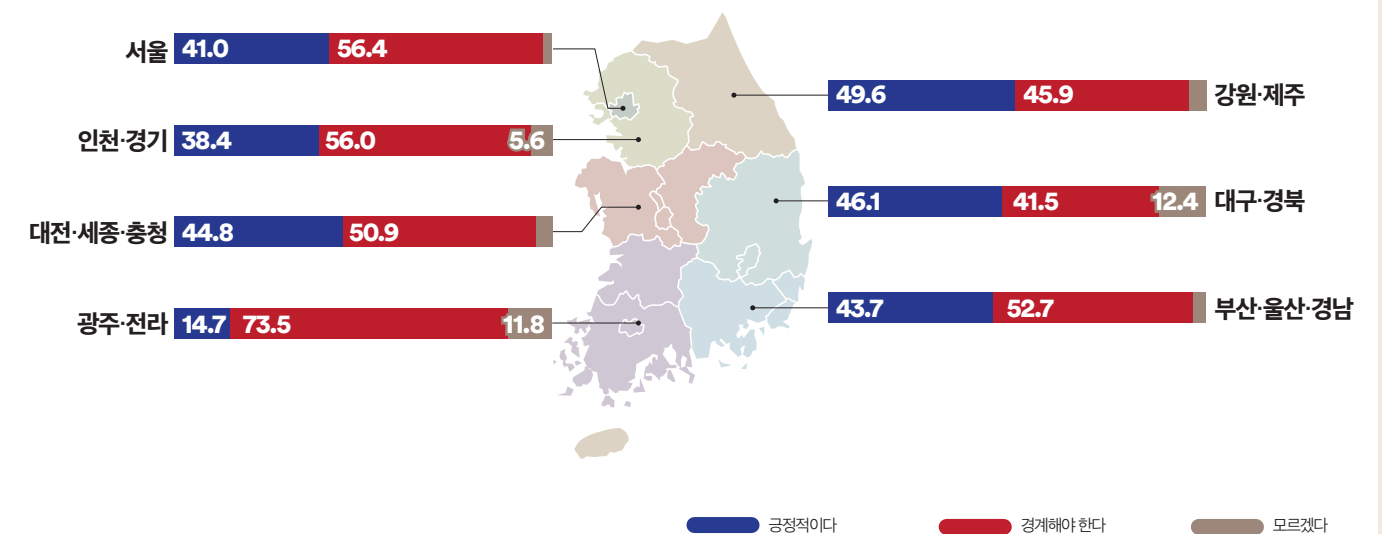
연령



정당지지도



권역



정치·사회 현안

언론과 욕일기

Q. 욕일기를 달고 부산에 입항한 자위대 함정에 대해 일부 언론이 햇살 무늬 자위함기라고 표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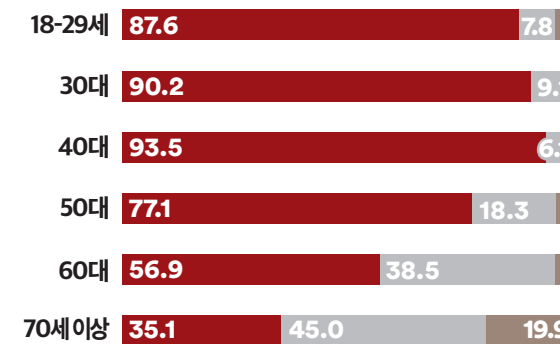
“햇살 무늬 자위함기 단 일본 호위함 부산 입항”

[헤럴드 경제, 5.29 기사 헤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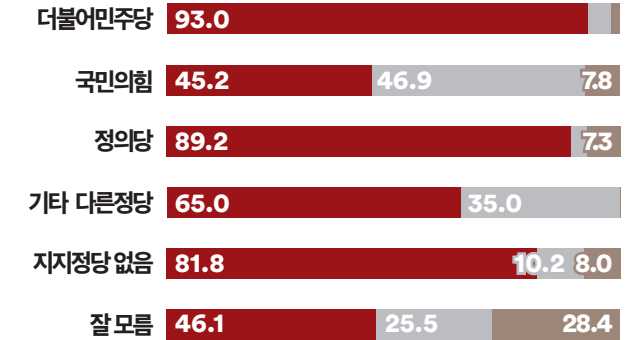
“붉은 햇살 무늬의 자위함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KBS, 5.29 뉴스기사 리포트 내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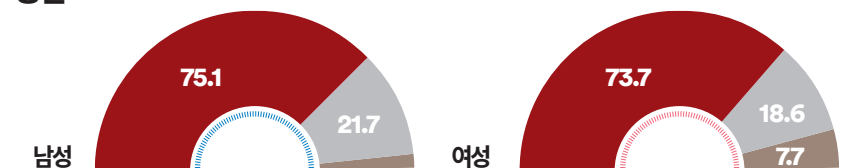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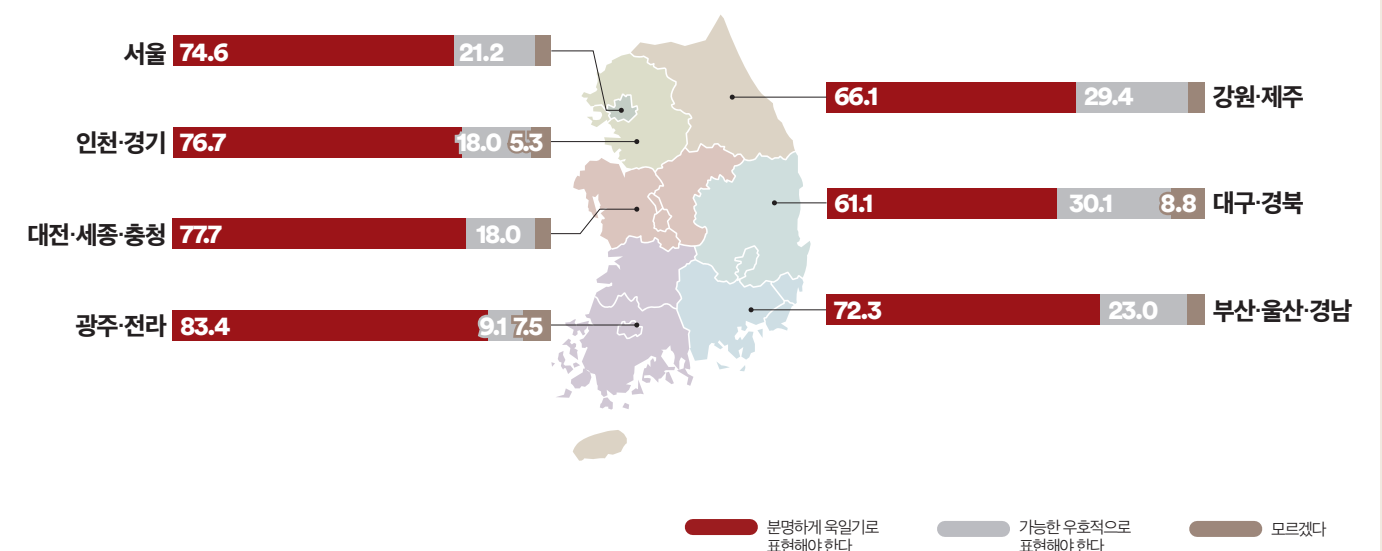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10명 중 7명 이상은 ‘욕일기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성·연령·권역별 변수에서 ‘욕일기로 표현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
무당층·중도층은 10명중 8명이 ‘욕일기로 표현해야 한다’고 응답
국민의힘 지지층은 두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고, 보수층은 ‘욕일기로 표현해야 한다’는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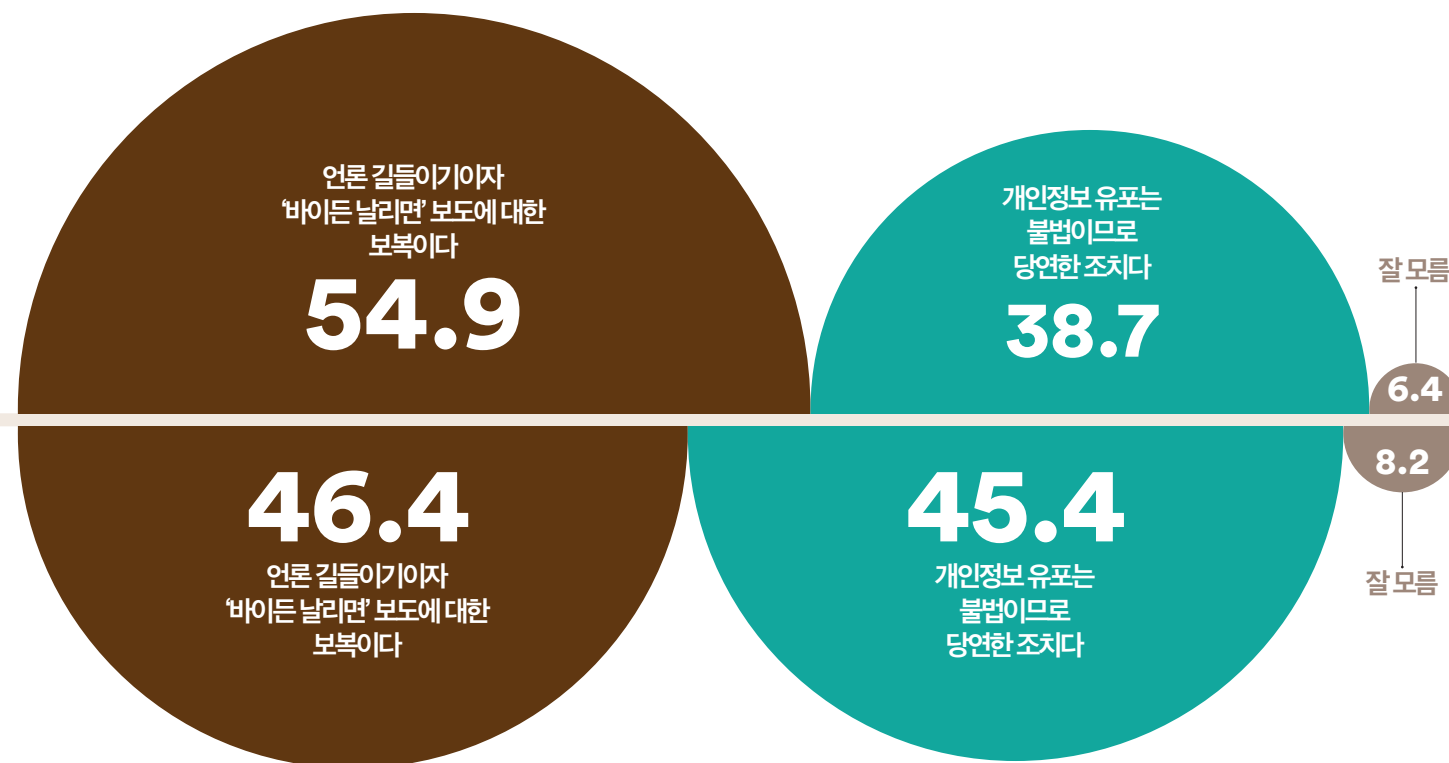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MBC 기자 압수수색

Q.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이 MBC 기자와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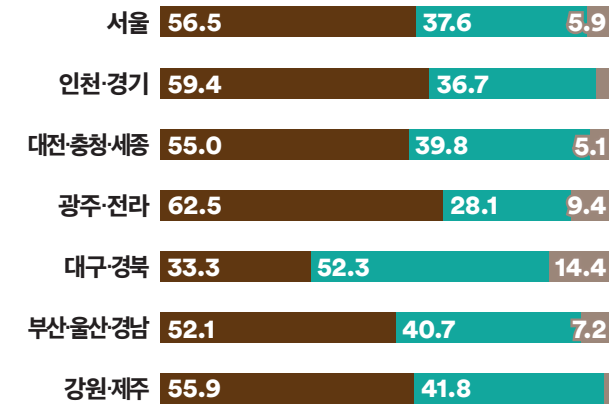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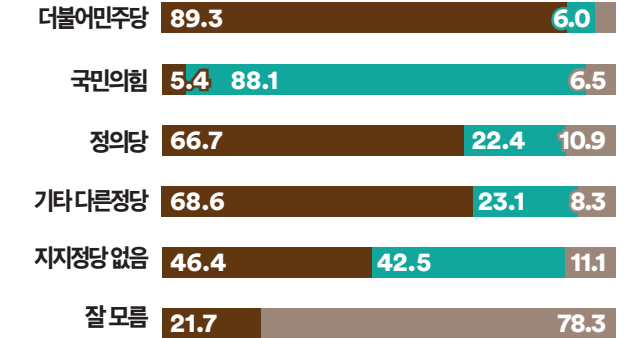


ARS에서는 '보복이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CATI에서는 두 응답이 팽팽하게 맞섬
두 조사 모두 40·50대에서는 '보복이다' 우세, 70세 이상에서는(CATI 20대 포함) '당연한 조치다' 우세
ARS |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보복이다'란 응답이 앞섬(수도권·호남권에서는 우세)
CATI | 호남권에서는 '보복이다', TK에서는 '당연한 조치다'가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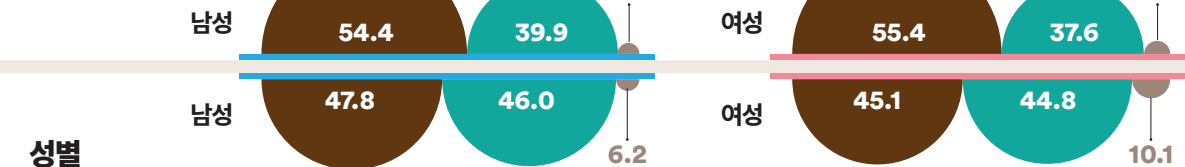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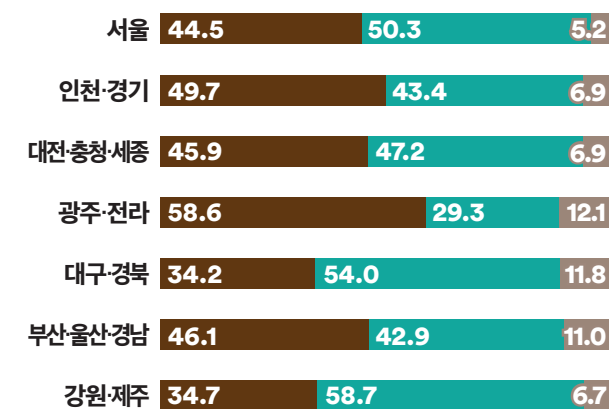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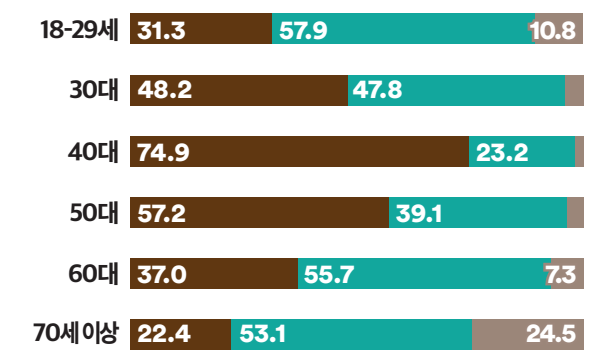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보도에 대한 보복 당연한 조치 모르겠다



5월 종합 분석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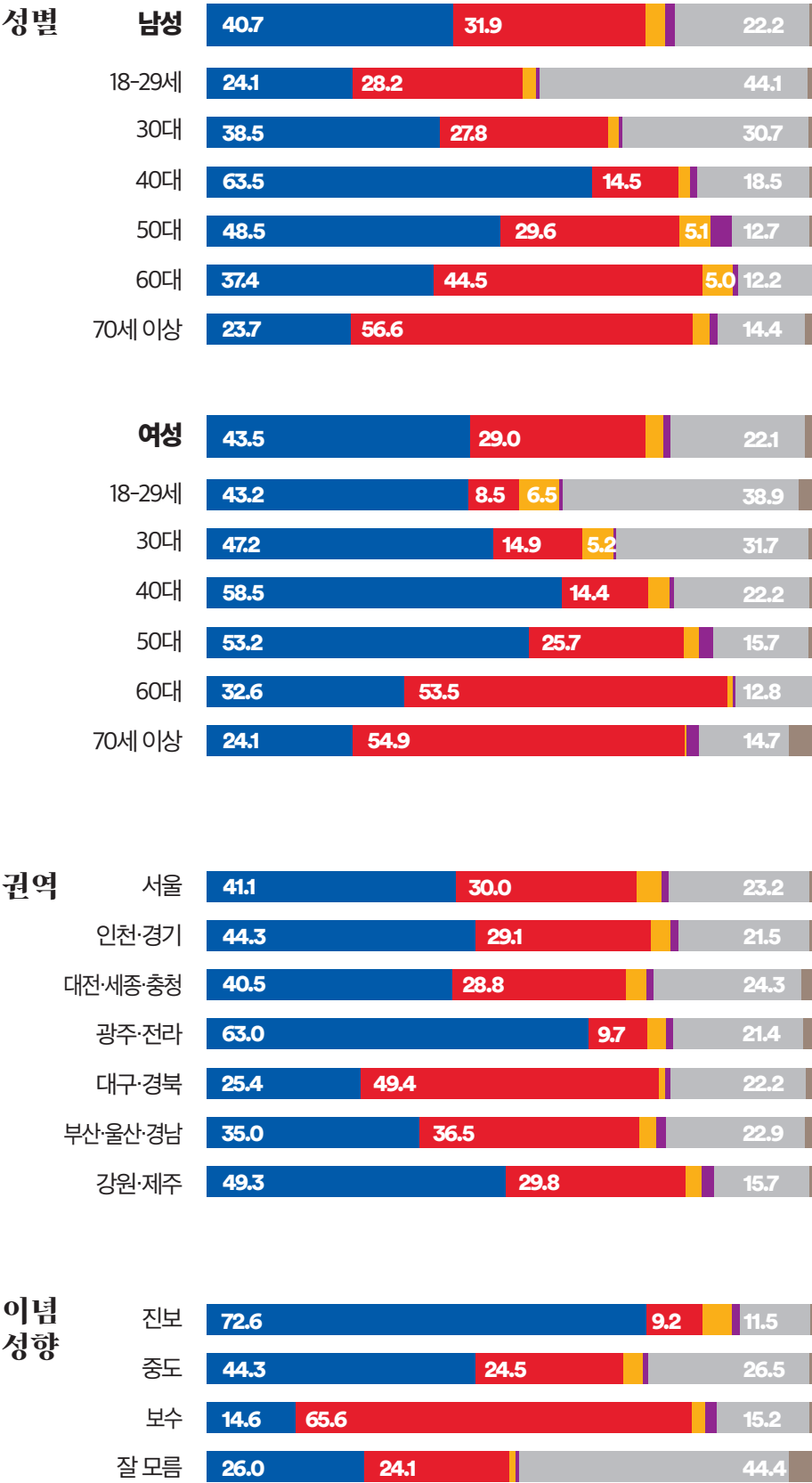
5월 통합 집계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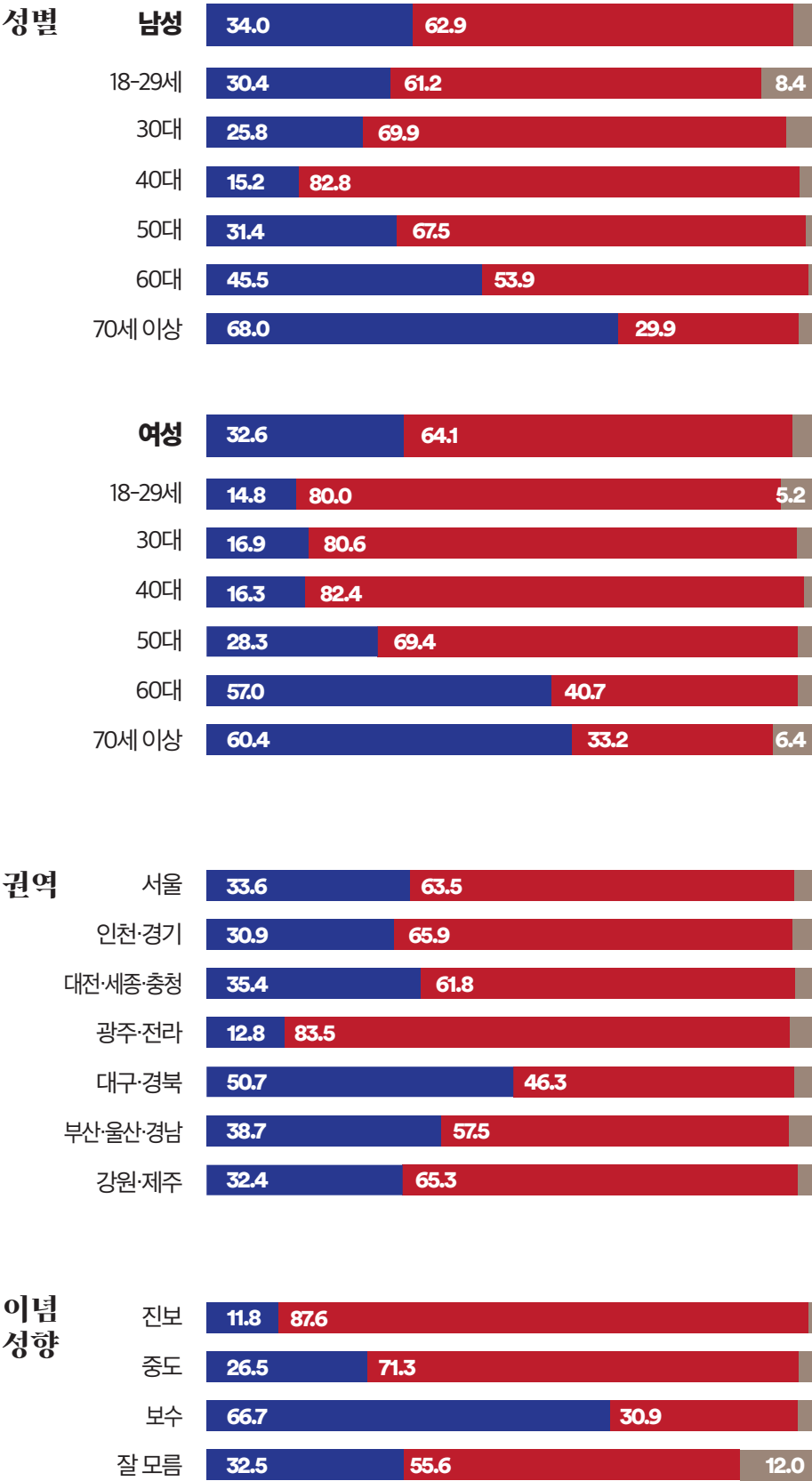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그 외 다른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잘함잘 못함잘 모름

정당지지도



국정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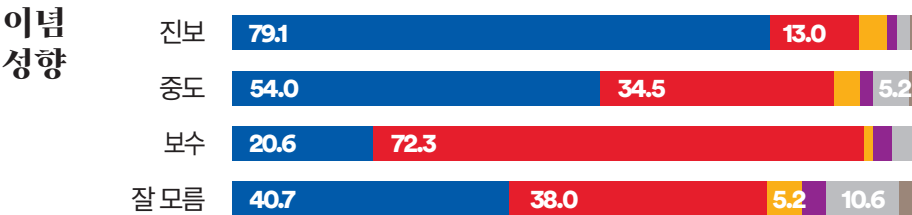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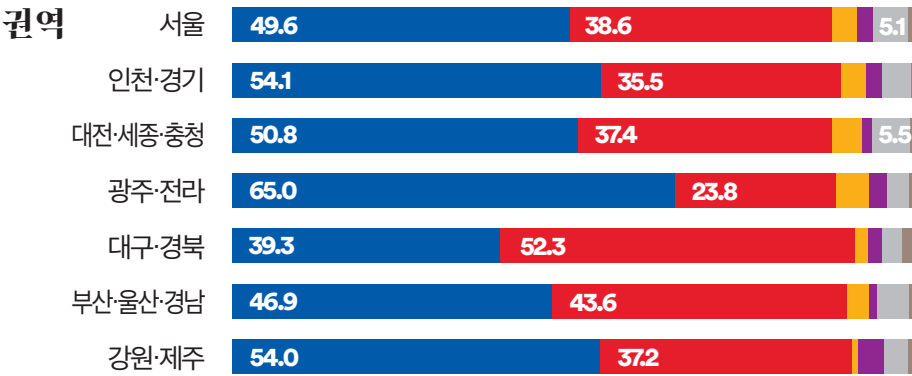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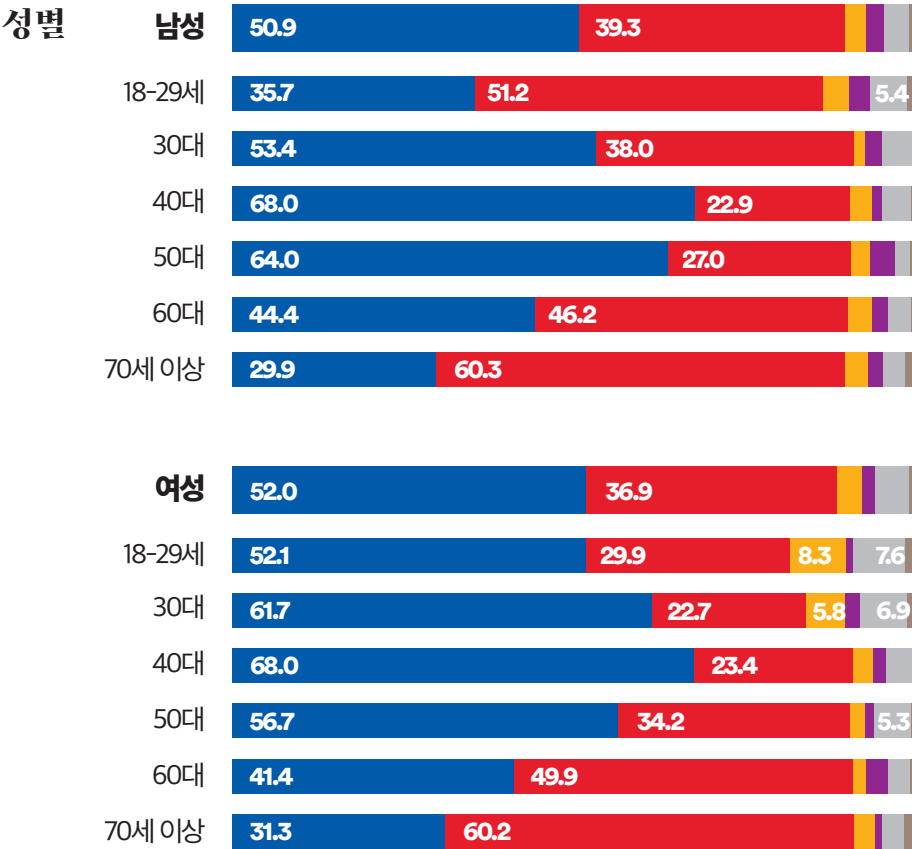
* 정례조사 기준

5월 통합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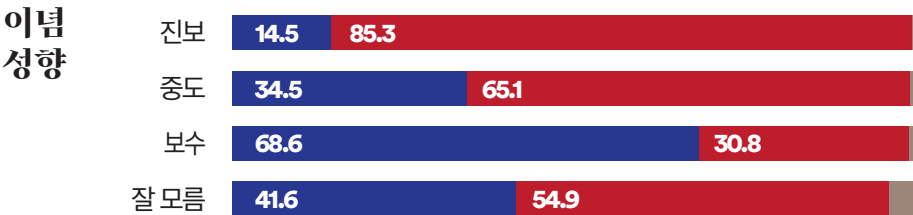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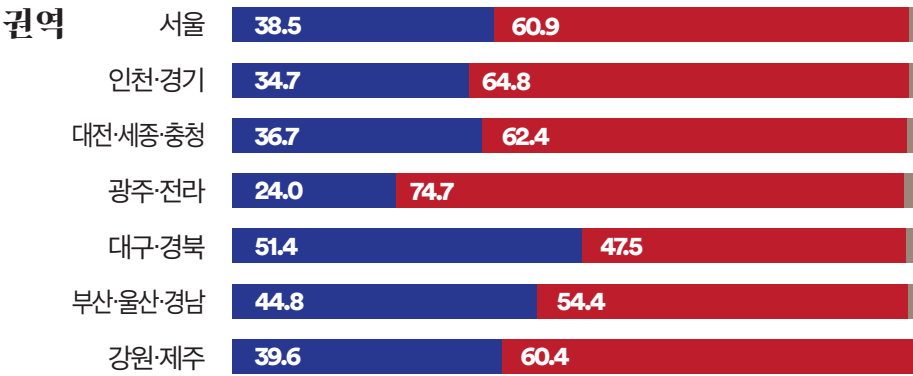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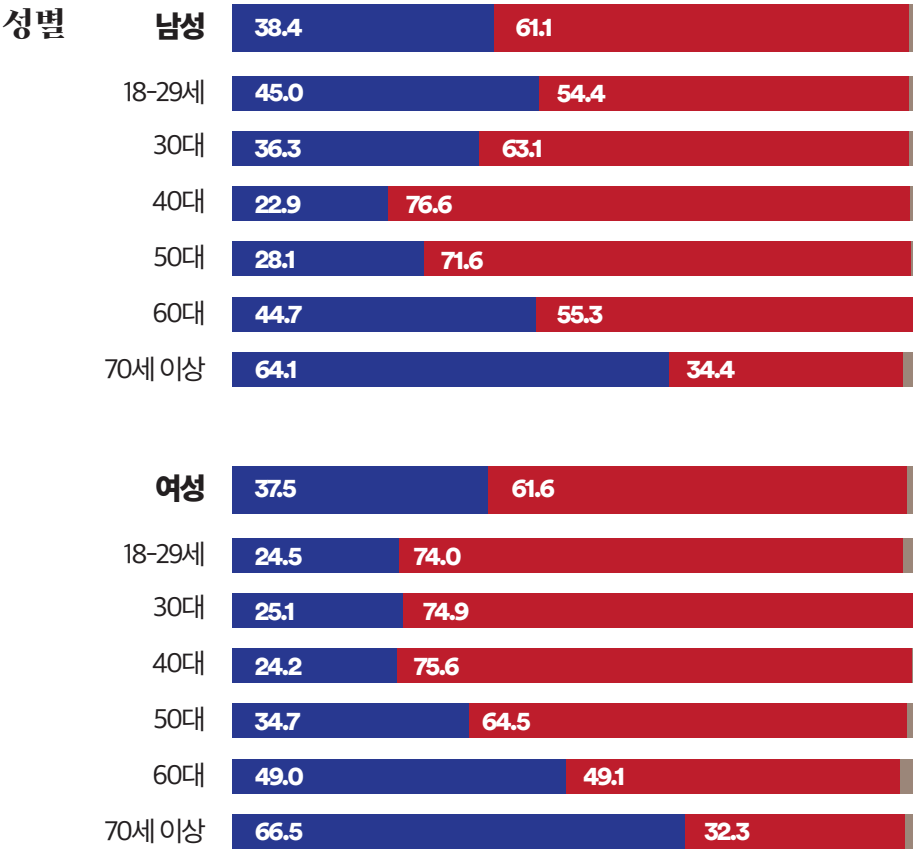
ARS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그 외 다른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 잘함
- 잘 못함
- 잘 모름

정당지지도



국정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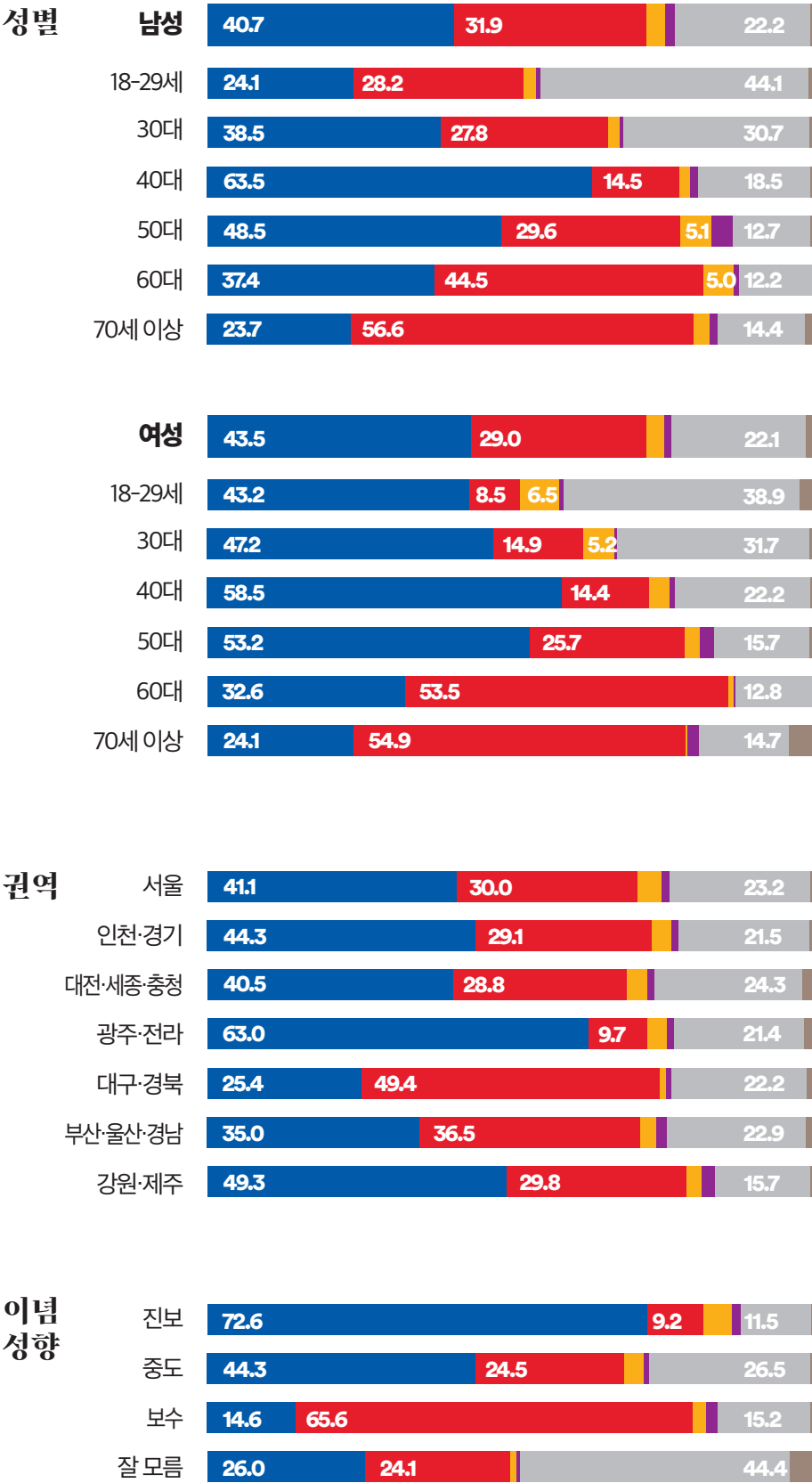
* 정례조사 기준

5월 통합 집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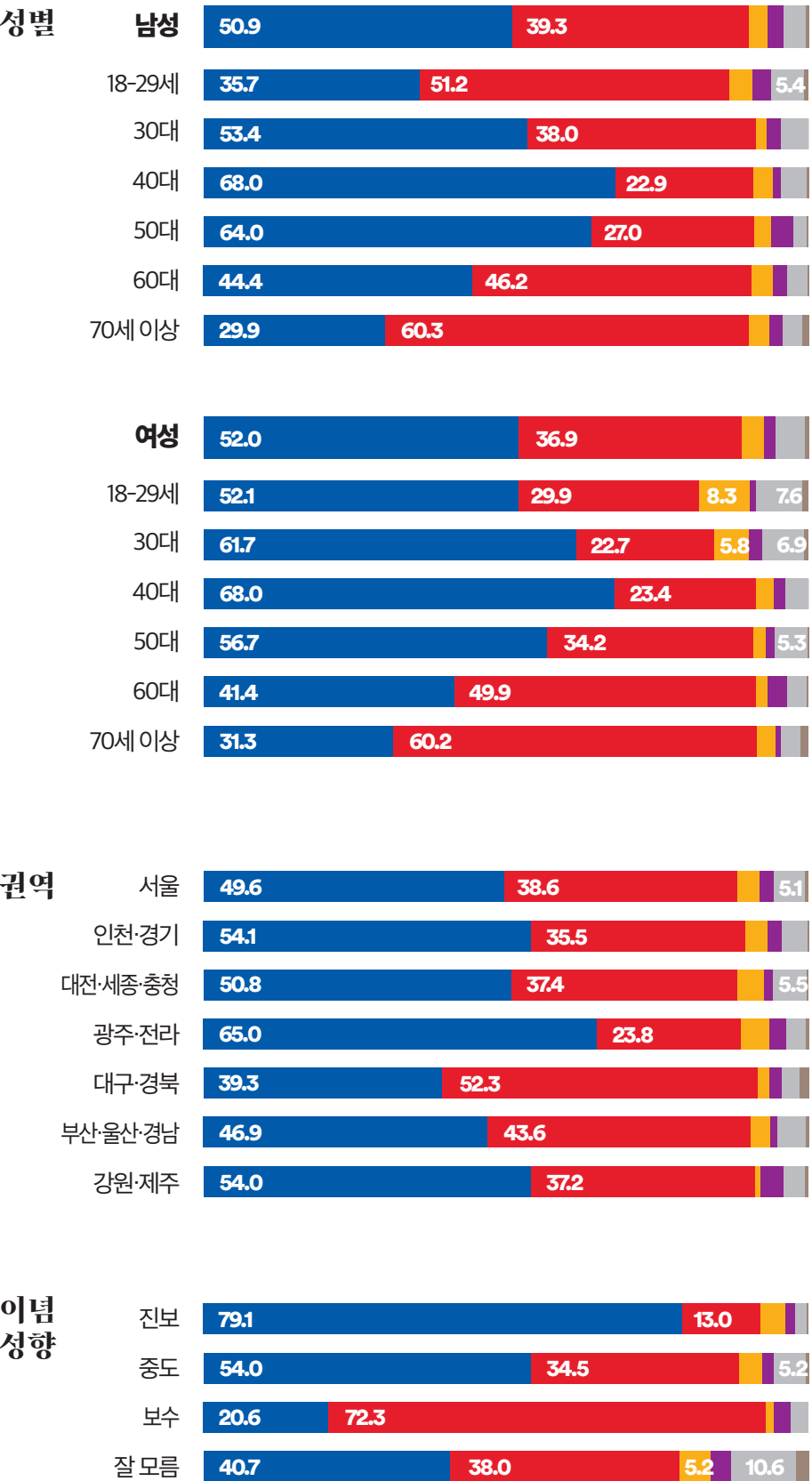
CATI / ARS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그 외 다른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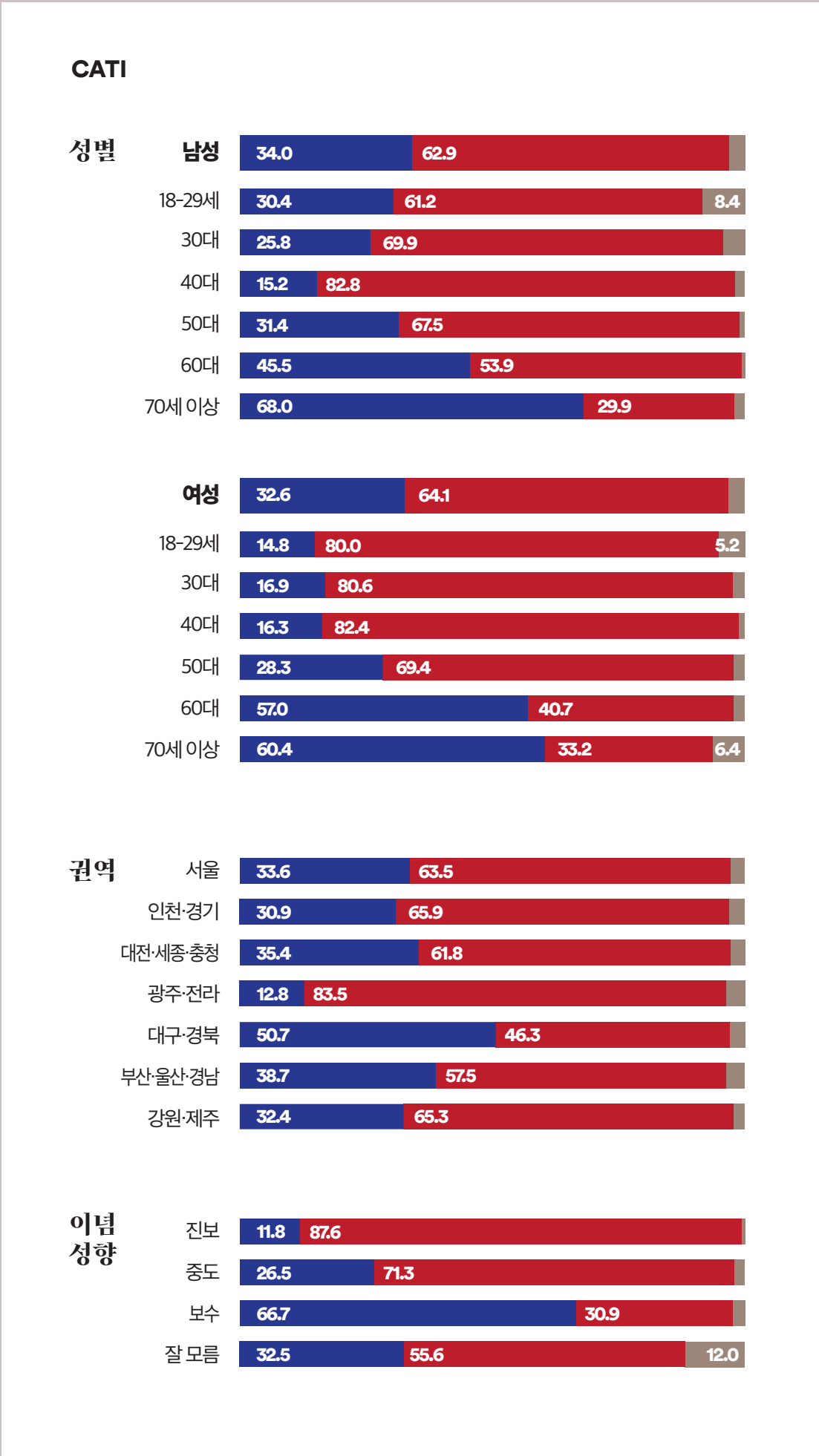
* 정례조사 기준

5월 통합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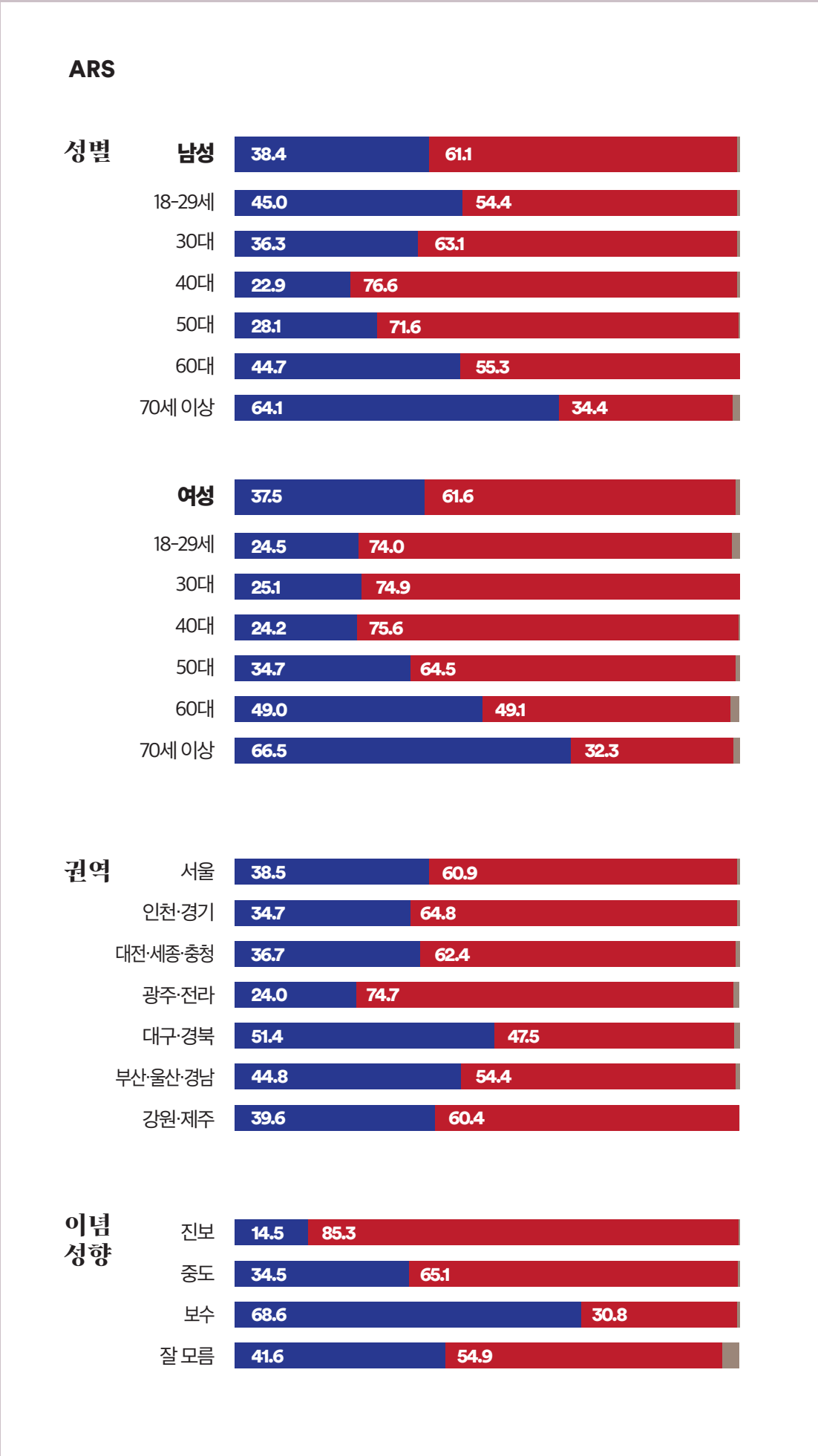
국정지지도

CATI / ARS

- 잘함
- 잘 못함
- 잘 모름



* 정례조사 기준



여론조사꽃 제42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여론조사꽃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콘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